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342656

2020년 8월

박사학위논문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 및 빈곤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 은 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 및 빈곤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Spouse's Verbal Violence on Women's Problem Drinking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Poverty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 은 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 및 빈곤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희 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 은 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은주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호남대학교 교수 吳世氣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龍燮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眞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丁誠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朴喜緖 (인)

2020년 7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 6
제1절 언어폭력 ····· 6
1. 언어폭력의 개념 ····· 6
2. 언어폭력의 구성요소 ····· 9
3. 언어폭력의 주요 이론 ····· 11
제2절 문제음주 ····· 17
1. 문제음주의 개념 ····· 17
2.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 20
3. 문제음주의 이론적 관점 ····· 22
제3절 문제음주의 대처자원과 위협요인 ····· 32
1. 대처자원으로서의 자아존중감 ····· 32
2. 대처자원으로서의 삶의 만족도 ····· 37
3. 위협요인으로서의 우울 ····· 43
제4절 빈곤 ····· 48
1. 빈곤의 개념 ····· 48
2. 빈곤의 주요 이론 ····· 5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절 선행연구 ····· 54
1. 선행연구의 동향 ····· 54
2. 선행연구의 평가 ····· 58

제3장 연구설계 ····· 60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60
1. 연구모형 ····· 60
2. 연구가설 ····· 62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 ····· 63
제3절 측정도구 검증 ····· 64
1. 언어폭력 ····· 65
2. 문제음주 ····· 66
3. 자아존중감 ····· 68
4. 삶의 만족도 ····· 71
5. 우울 ····· 73
6. 빈곤과 통제변수 ····· 75
제4절 분석방법 및 절차 ····· 76

제4장 실증분석 ····· 79
제1절 일반적 특징 ····· 79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9
2. 음주행동 특성 ····· 82
3. 음주행동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 84
4.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음주행동 ····· 87
5.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 88
6.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 89
7.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 9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모형 검증 ····· 91
1. 측정모형 검증 ····· 91
2.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 94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 97
1. 다중 매개효과 검증 ····· 97
2. 개별 매개효과 검증 ····· 98
3. 조절효과 검증 ····· 100
제4절 분석결과 논의 ····· 104
1. 두 변수 사이의 가설 검증 결과 ····· 104
2. 매개효과 검증 결과 ····· 106
3. 조절효과 검증 결과 ····· 107

제5장 결 론 ····· 10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09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113
1. 이론적 시사점 ····· 113
2. 정책적 시사점 ····· 114
3. 실천적 시사점 ····· 116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 119

참고문헌 ····· 120

[부록] 설문지 ····· 15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2-1> 언어폭력의 개념 ····· 8
<표 2-2> 언어폭력의 내용 ····· 10
<표 2-3> 스트레스의 원인 ····· 24
<표 3-1> 언어폭력 ····· 65
<표 3-2> 문제음주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 67
<표 3-3> 문제음주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68
<표 3-4>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 69
<표 3-5> 자아존중감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70
<표 3-6>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 71
<표 3-7> 삶의 만족도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72
<표 3-8> 우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 73
<표 3-9> 우울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74
<표 3-10> 빈곤 ····· 75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0
<표 4-2> 음주행동 특성 ····· 83
<표 4-3> 음주행동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 84
<표 4-4>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 87
<표 4-5>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 88
<표 4-6>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 89
<표 4-7>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90
<표 4-8> 측정모형 분석 ····· 92
<표 4-9>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 94
<표 4-10> 연구모형 분석결과 ····· 95
<표 4-11> 구조방정식 효과분해 ····· 98
<표 4-12> 개별 매개효과 검증 ····· 9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3> 일반가구 조절효과 ····· 101
<표 4-14> 빈곤가구 조절효과 ····· 103
<표 4-15> 연구가설 검증 결과 ····· 10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2-1] 배우자폭력 피해자의 학습된 무기력 반응 ····· 13
[그림 2-2] 생태체계 모델 ····· 16
[그림 2-3]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 ····· 28
[그림 2-4] 본 연구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 29
[그림 3-1] 연구모형 ····· 60
[그림 3-2] 문제음주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68
[그림 3-3] 자아존중감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70
[그림 3-4] 삶의 만족도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72
[그림 3-5] 우울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74
[그림 4-1] 측정모형 분석 ····· 93
[그림 4-2] 연구모형의 측정결과 ····· 96
[그림 4-3] 개별 매개효과 검증 ····· 100
[그림 4-4] 일반가구 조절효과 검증 ····· 102
[그림 4-5] 빈곤가구 조절효과 검증 ····· 10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Spouse's Verbal Violence on Women's Problem Drinking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Poverty

Eun-Ju Kim
Advisor : Prof. Hwie-seo Park Ph.D.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with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confirms the effect of stress from spouse's verbal violence on women's problem drinking, identifie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s the stress coping resource and depression as a threat factor between two variables. It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due to indigence.

For the study, the 14th(2019)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used, and the research hypothesis was set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 majo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4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MOS 24 statistical program. The statist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variables were conducted to check the characteristics and normality of the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heck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and measurement model analysi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as performed to confirm whether the observed variables reflected the concept of potential variables. Subsequently, a research model analysis, a mediation effect analysis, and an adjustment effect analysis were sequentially conducted based on the model that passed the fitness criteria.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spouse's verbal viol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omen's problem drinking in the positive direction. As a result, the hypothesis that the spouse's verbal violence induces stress on women and that women who choose to drink as a countermeasure to the stress caused will lead to problem drinking.

Second, self-esteem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spouse's verbal violence and women's problem drinking. Therefore, the hypothesis that the spouse's verbal violence would lower women's self-esteem and increase problem drinking was not supported.

Third,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spouse's verbal violence and women's problem drinking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t has been verified empirically that spouse's verbal violence lowers women's life satisfaction and low life satisfaction affects women's problem drinking.

Fourth,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spouse's verbal violence and women's problem drink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spouse's verbal violence, the greater the depression of the woman, which in turn affected the problem drinking.

Finally, indigence was found to control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etween the spouse's verbal violence and women's problem drink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rough analysis, the theoretic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pouse's verbal violence and women's problem drinking were presented. Among them, th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spouse's violence were identified in women's problem drinking,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conducted for spouses with low therapeutic cooperation.

Second, in order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to women who suffering from verbal violence and problem drinking by spouses, a clear boundary on the performance of co-work and rol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nd between the institutions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cial and cultural perceptions that permissive perceptions of drinking and verbal violence are serious viol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form a support group so that people can be alert while maintaining their daily lives without being isolated from socie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seminate systematic programs for women who have drink problems.

Keywords : Women, Verbal Violence, Problem Drinki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overty,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ess Coping Adaptation Mode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월간음주율은 2005년 73.3%에서 2018년 70.0%로 3.3%가 낮아졌으나 성인 여성은 36.2%에서 45.7%로 9.5% 상승하였다. 고위험음주율 추이에서도 남성은 20.0%에서 20.7%로 0.7% 상승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3.3%에서 7.0%로 4%가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의 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은 큰 변화없이 현상유지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 반면 여성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 상승은 두드러진 현상으로 여겨진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사망원인 중 간 경변, 교통사고, 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상당한 비중이 음주 영향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질병에 따른 음주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에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6.4%로 나타났으며 1년 유병률은 2.1%로 약 409,41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여 현재 여성음주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고위험음주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고위험음주가 40대 정점에 오른 이후 점차 하락하는 남성 음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과 유병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하여 여성 고용률 상승, 경제활동 참여 증가, 높아진 결혼연령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소주 도수를 낮추는 등의 알코올 관련 요인, 주류 관련 광고비용과 같은 알코올 마케팅의 영향과 관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이해국, 2019년).

문제음주와 함께 배우자의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과 같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1%, 성적폭력 3.4%, 경제적 폭력 1.2%, 그리고 언어·정서적 폭력이 8.1% 구성을 보여 언어·정서적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정서적 폭력은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와 같은 언어적 폭력 이외에 위협과 물건을 부수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언어·정서적 폭력 비율이 다른 폭력에 비해 발생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언어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배우자 사이에 일어난 폭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신체에 대한 물리적 작용과 연결되어 있고 물리적 통증이 수반되는 손상으로 이해되어 육체적 손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향이 많았다(김미연, 2015). 욕설과 악담, 무시하는 말투, 빈정거림 등과 같은 언어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력이 있기 전에 선행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Patricia Evans, 1992; 이강혜 역, 2018), 피해자에게 무력감, 우울, 공포심, 분노, 고립감,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며, 가해자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경험이나 계획, 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하여(최진주, 2015) 피해자의 현실 인식 능력을 훼손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Patricia Evans, 1992; 이강혜 역, 2018),

더구나, 언어폭력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세대 간 전수되므로 자녀들의 결혼생활에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김상인, 2011). Livingston(1986)은 음주와 가정 내 폭력의 관계를 '문제를 강화시키는 재앙적 순환고리(multually reinforcing disatrous cycle)'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음주와 폭행이 서로의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여성 음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 탐색과 대상의 확대로 연구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만,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연구로 장수미(2006)의 문제음주자가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남성의 음주가 언어적·정서적 폭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임구원, 2013), 송진영·심정수(2014), 송진영(2015)의 남성의 문제음주가 언어폭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어 언어폭력과 음주는 그 상관성이 적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언어폭력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상위개념인 가정폭력과 문제음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남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가 월등히 많으며 문제음주를 선행요인으로 배우자폭력을 결과로 보고 있어 언어폭력을 선행요인으로 문제음주를 결과로 전제한 본 연구와 인과관계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장수미, 2008), 가정폭력과 음주문제를 동시에 겪은 여성의 경험(김주현 외, 2011), 배우자의 폭력과 피해여성의 문제음주(김재엽 외, 2010; 조자영 외, 2015) 등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에 관점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중에서 언어폭력의 발생비율이 월등히 높고 여성의 음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보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성의 폭력과 여성의 음주를 낮추려고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언어폭력은 스트레스를 높이고(추환호, 2017; 정애진 외, 2020), 스트레스 상황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적절한 대처나 완충효과를 갖기 어려우며(Agoub et al., 2005),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와 문제 중심의 대처는 낮아진다고 하였다(용후란, 1995; 이봉재, 2005). 스트레스가 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대처자원을 초과할 경우 우울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음주를 선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음주량과 음주횟수가 늘어날수록 생활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높아지고 높아진 스트레스는 다시 음주를 부르는 악순환을 일으켜서 결국은 문제음주라는 부적응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다중 매개효과를 확인하며 빈곤으로 인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문제 3.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빈곤으로 인한 한 차이를 보이는가?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이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며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빈곤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가설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와 243개 시·군·구에서 총 6,612가구의 가구원과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하고 가구 유형으로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제14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제14차 한국복지패널의 조사인력 50명이 2019년 2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93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내용적 범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관계 파악을 위하여 독립변수로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선정하였고 여성의 문제음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고, 빈곤을 조절변수로 선정한 이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자아존중감,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여성의 문제음주, 삶의 만족도와 여성의 문제음주, 우울과 여성의 문제음주와 같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지막으로 조절변수로 빈곤을 투입하여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가 일반가구와 빈곤가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각 변수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위해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보고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부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하였으며 각종 언론 보도자료와 변수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19년 조사하여 2020년 발표한 한국복지패널 제14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선정된 변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선정하였다.

셋째,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와 빈곤으로 인한 조절효과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24와 AMOS 24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넷째, 선정된 변수를 정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을 선택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석과 음주행동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여성음주의 영향요인과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의 특성과 정규성 확인과정을 거친 후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와 개념타당도를 확인하고 검증을 통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개별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다섯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언어폭력

1. 언어폭력의 개념

언어는 뜻과 표현 방식의 결합이라는 기호성,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라는 사회성,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역사성을 갖는다고 하였다(강영준 외, 2015). 언어는 인간의 경험 속에 아주 단단히 짜여 있어서 언어 없는 생활이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homo loquens)이며(Dennis Butler Fry, 1977)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인간 공동체의 불가결한 조건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허우성, 2009). Avram Noam Chomsky(2013)는 인간이 자연을 넘어설 수 있었던 힘이 언어에 있으며 언어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된 본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주로 배우자, 친구, 부모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대표적 예는 욕설과 악담이라 할 수 있는데, Patricia Evans(2018)에 따르면 언어폭력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점차 강도가 높아져 피해자가 서서히 막말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어 남들이 알아차리기 힘들고 신체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어폭력이 먼저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언어폭력의 형태는 관심 안 주기, 농담을 가장한 언어폭력, 대화 차단과 말 돌리기, 자기 뜻대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암묵적 강요,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어폭력은 뇌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분비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다(중앙일보, 2016). 언어폭력으로 인한 불안. 우울. 분노의 감정 상태가 만성화되면 호르몬이 과다분비되고 그것이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근육통, 호흡곤란 등 다양한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언어폭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력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위축, 당혹감, 분노, 슬픔, 수치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김미영 외, 2007; 박은영 외, 2007; Lanza, 1983), 언어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대인관계에 위축(박소정·서천영, 2017;Arden, 2002)이 생기고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게 되며 불안감과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언어폭력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부작용, 위축,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결과의 발생(Salovey & Mayer, 1990; Goleman, 1995)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언어폭력은 육체적 손상을 직접 일으키지 않으며 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개념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미연, 2015).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의 말은 언어폭력으로 작용하여 '감정기억(emotional memory)'으로 편도체에 남게 된다고 하며 언어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난다고 하였다. 언어폭력 가해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일반기억'으로 저장되어 늘 하는 행동, 별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 되어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였다(중앙일보, 2016. 04. 11.). 욕설뿐만 아니라 사소한 잔소리도 언어폭력이 될 수 있는데 잔소리가 반복되면 비난이나 욕설이 일으키는 것과 같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 구조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이상원 외, 2013).

언어폭력은 긴장감의 즉각적인 해소를 위해 일상에서의 불쾌한 감정을 원색적인 언어로 표출하는 것(구자관, 2007)으로 허물이 없는 관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지만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임정선, 2014).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무의식 속에 깔려 있으며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있다(이은호, 2017). 언어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집단 형태가 가족이며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심리적 외상(trauma)을 겪게 되는데 부부 사이의 언어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정신적인 충격,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Infante & Wigley(1986)는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자 타인의 자아개념을 공격하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Diaz(1991)은 큰 소리를 지르며 언어를 통해 인격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노성동(2014)은 언어를 도구로 사람의 마음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서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인간의 언어적 공격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를 통해 학자들이 정의한 언어폭력에 대한 개념을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 언어폭력의 개념

연구자	언어폭력의 개념
Cox(1991)	혹독한 비난을 당했다고 느끼는 의사소통
Cameron(1998)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Patricia Evans(1992)	심리적 폭력의 일부이며 타인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말. 상대에게 틀린 것을 믿게 하며 상대방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는 모든 말
강길호(1996)	자아개념을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언어적 메시지나 표현
박경현(2001)	부당하고 폭력적인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박미애(2003)	언어를 매개로 한 폭력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아개념을 손상하는 모욕적인 언행
강신욱(2005)	의도적, 잠재적으로 타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의사소통 행위
황재용(2008)	고함치고 말로 모욕을 주고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여 다른 사람의 자아를 공격하는 언어표현
소유진(2011)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조롱, 올림, 협박, 욕설 등으로 언어적 공격을 하여 자아개념에 상처를 입히는 모든 언어적 메시지나 표현
김희정·박덕(2013)	고의적 모욕, 멸시, 손상, 비난, 비하, 냉소, 조롱, 저주, 질책, 협박, 억압, 공격할 의도로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 자아개념을 손상시키는 행위
노효송(2008)	언어를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상위의 폭력

*출처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정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개념정리를 통해 언어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손상시키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피해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Infante & Wigley(1986)의 개념 정의를 지지하며 언어폭력을 배우자가 언어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자 행사한 폭력을 말하며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아개념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배우자의 언어폭력(verbal violence)을 아내학대(wife abuse), 배우자학대(spouse abuse), 배우자폭력(spouse violenc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 언어폭력의 구성요소

언어폭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언어폭력에 관한 학자들의 유형 구분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Infante & Wigley(1986)의 자아개념에 따른 구분과 Buback(2004)의 수평적, 수직적 형태의 구분을 들 수 있다.

Infante & Wigley(1986)는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어떻게 손상시키느냐에 따라 언어폭력을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유형으로 성격, 능력, 출신 배경, 생김새에 대해 비난하고 재앙과 불행을 바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언어폭력의 대상을 분노하게 만들기 위하여 심기를 건드리고 약을 올리는 희롱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유형으로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언어폭력을 성격, 능력, 배경, 생김새, 저주, 희롱, 조롱, 협박, 욕설과 같이 9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Infante et al., 1992). 이러한 9가지 유형은 내용적 유형과 방법적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내용적 유형은 성격, 능력, 생김새, 배경을 부정적 언어로 말하거나 공격하는 언어표현이며 방법적 요소는 저주, 희롱, 조롱, 협박, 욕설은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Buback(2004)은 언어폭력을 수평적 형태와 수직적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평적 형태는 동등한 직위의 동료들 사이에서 생기는 폭력의 형태이고 수직적 형태는 동등하지 않은 대상을 상대로 부적절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 언어폭력은 성별이나 역할, 생활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등하지 않은 권력 관계는 폭력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직적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마땅히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적극적 대처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쉽지 않아서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이순희·정승은, 2007; Patricia Evans, 1992). 수평적 언어폭력의 경우는 사적인 공간에서 폭력이 일어나며 수직적 언어폭력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으며(Cook et al., 2001), 외모, 가족 모욕, 인종, 행동, 이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언어폭력을 구분하기도 하였다(Mooney et al., 1991).

이러한 언어폭력에 대해 Brown & Levinson(2007)은 언어폭력이 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김예란(2015)은 언어의 폭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의 권력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Gottman(1984)은 언어폭력이 공격성을 증가시켜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언어폭력에 관한 구체적 행동에 관하여 아래 <표 2-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 언어폭력의 내용

유 형	행 동
언어폭력	-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행동 - 폭언, 무시,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동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동 -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말하는 행동 -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동 - 대화를 거부하고 희롱하는 행동 - 부정행위를 했다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행동 - 모욕적인 단어로 부르는 행동(예: 멍청이, 뚱뚱한, 매춘부) - 거부감을 주고 좌절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는 행동 - 이중적인 언어로 혼란을 주는 행동 - 욕설하는 행동 - 험담하는 행동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동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동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 - 빈정대는 행동

* 출처: 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9), 여주시청(여성복지/가정폭력),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2020), Office on Women's Health(미국 보건복지부)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언어폭력의 주요 이론

본 연구에서 언어폭력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언어를 이용한 폭력을 말하며 가정폭력의 하위요인에 속하므로 가정폭력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다양하게 경험되며 가해 본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거론된다고 한다(허민숙, 2013: Besile, 2009; Ford, 2009; Jordon 2009). 가정폭력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은 가해자 관점의 이론과 피해자 관점의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관점 이론인 학습된 무기력 이론(theory of learned helplessness), 여성주의 이론(feminist theory), 체계이론(systems theory)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학습된 무기력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theory of learned helplessness)은 피할 수 없는 힘든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한다(박은숙, 2019). Seligman(1975)이 우울증 연구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며, 이후 관심을 넓혀 동물들을 '도피집단', '통제 불가능 집단',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회피 학습을 하던 중 '통제 불가능 집단'의 무기력한 행위를 보고 제안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력의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하여 무기력하고 불안하며 (Rhodes, 1992), 자기 비난,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죄책감과 같은 정서적 손상을 초래하여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폭력 관계에 머물게 된다고 하였다(Walker, 1984).

Walker(1984)는 피해 여성이 희생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순환성(cycle of volence) 이론으로 가정폭력의 3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가해자가 욕설하고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는 등 긴장이 점차 높아지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정으로 여성은 폭력을 감지하고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긴장수립(tension building)의 단계이다(천보경, 2019). 이 시기의 여성은 가해자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며 순종하고 비위를 맞추고, 가해자는 불만과 적개심을 표현하며 신경질적으로 여성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며 폭력의 예고로 음주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2단계는 가해자인 남편이 여성을 향해 극심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퍼붓고 여성은 심하게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떠는 심각한 폭력단계(acute violence)이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폭력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집을 떠나거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김광일,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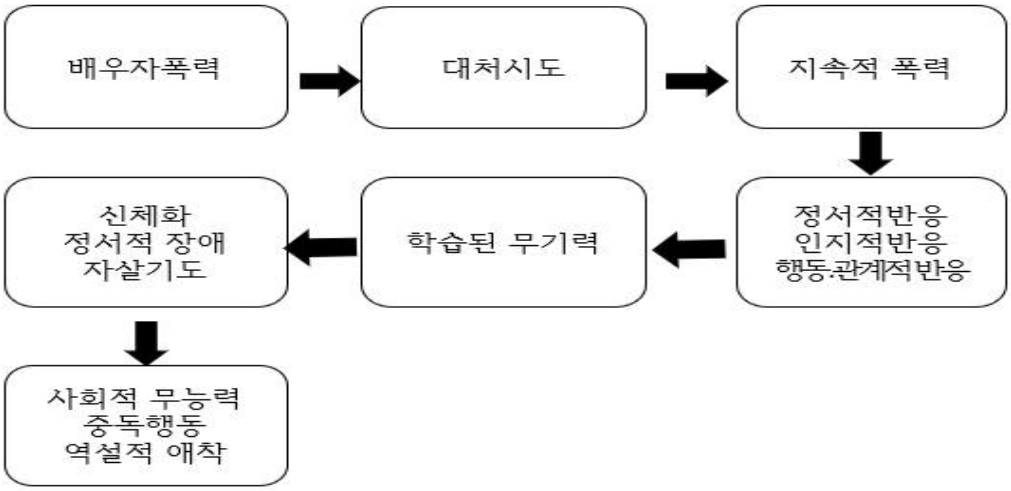
3단계는 애정 어린 회개의 시기(loving contrition)로 가해자인 남편은 폭력사용으로 긴장이 해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물과 폭력 금지의 약속을 하는 단계이다(천보경, 2019). 가해 남편은 피해 여성에게 의존성을 보이고 피해 여성은 그런 가해자에게 동정을 느껴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관계에 머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박미은, 1997). 가끔 배우자가 보여주는 사죄나 죄책감은 여성에게 간헐적 강화(intermittent reinforcement)로 작용하여 잠시 동안 평온함을 준다고 한다.

피해여성의 무기력하고 고립된 인간관계는 다시 우울과 정서적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cycle of volence)되어 자발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만성적인 우울,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매 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1]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박미은, 1997).

Walker(1979, 1984)의 순환성 이론 속의 매 맞는 여성 증후군과 같은 개념은 여성이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공과 함께 피해여성의 심리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학습된 반응의 진행 과정은 [그림 2-1] 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매 맞는 여성증후군 : 약한 폭력에서 시작해 심각한 폭력으로 연결되고 그런 폭력 뒤 이어지는 남편의 사과와 뉘우침의 과정이 반복 순환되는 심리적 단계를 통해 매 맞는 아내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출처 : 천보경(2019)의 학습된 무기력 반응을 재구성.

[그림 2-1] 배우자폭력 피해자의 학습된 무기력 반응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력만으로 무기력을 학습하고 폭력 상황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예상 가능한 남성의 위해 때문에 폭력 관계에 머무르게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경찰이나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이전의 시도로 인해 더욱 악화된 상황, 남편의 감시와 협박 등 객관적인 현실의 인식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이 반복되면서 순환성(cycle of violence)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남편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간다고 (박미은, 1997)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희생화 과정의 결과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학대자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traumatic bonding)'로 발전된다고 한다.

2) 여성주의 이론

가정폭력을 성별화된 폭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여성주의 이론(feminist theory)은 성(gender)와 힘(power)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을 설명한다(정춘숙, 2015; Yllo et al., 1993). 이 이론은 가정폭력을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가정폭력은 특정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여성차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별, 가부장적 질서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박힌 인식이 만들어 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여성주의 이론은 남성우월주의 사회·문화적 특성,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가족 구성원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소유의식을 가정폭력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김평식 외, 2017). 가부장 문화는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개념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남성 우위적 사고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더 짙게 나타난다고 한다.

가정 내에서 발언권이 적은 억압적 환경에서 사는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World Bank, 2012) 보고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민(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30만 가구를 넘겼고(2018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돈을 주고 한 결혼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를 종속적인 관계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에서 찾는다. 결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 성격을 지니는데(고기숙, 2012),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과 경제적 안정을 구해야 하므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남편의 권력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 내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의 수준, 성 평등에 대한 인식,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도 권력과 불평등의 이해가 가능하다. Manjoo(2011)는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도적인 폭력은 구조적 불평등의 형태이며 여성에게 가한 제도적 차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영속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에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있고 제도적, 구조적 차별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속된다는 것이다(김양희, 2013).

이 경우 여성은 배우자로부터의 개인적 폭력과 사회구조적 폭력을 동시에 당하게 되며 여성에 대한 차별로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2)는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송아영(2018)은 배우자의 폭력은 여성 인권의 수준과 성 평등 인식의 부재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에 따라 배우자 폭력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허용도가 낮아지고 있으나(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 2019), 여전히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피해자의 의지 문제로 인식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우가 남아 있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가정 내 의사결정 권한을 골고루 나눠 가질 때 여성 인권이 강화되고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배우자폭력을 낮출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배우자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3) 생태체계이론

'체계(System)'는 자연과학 영역에서 사회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들며 지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천보경, 2019). 생태체계이론(ecoystems theory)은 어떤 현상을 부분이나 부분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신혜섭, 1998).

사람들 행동의 영향요인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단일 요소로 규명되는 다른 연구에 비해 유기체를 둘러싼 여러 요인을 포괄할 수 있으며(Bronfenbrenner, 1995) 동시에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문화적 요소에 관하여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김정란·김경신, 2003).

여러 체계 중 미시체계(microsystem)에서는 부부 사이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부부 행복도가 낮을수록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가정폭력을 권력의 사용과 남용으로 바라보았는데, Straus & Gelles(1980)에 의하면 가족들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지배되지 않을수록 낮은 학대를 보인다고 하였다. 가족 내 남성의 지배권과 통제, 부부갈등과 음주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개인적 특징이 중간체계보다 폭력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손정영 외, 1998). 반면, 거시체계의 영향이 가정폭력에서 가장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윤정숙 외, 2017; Heise,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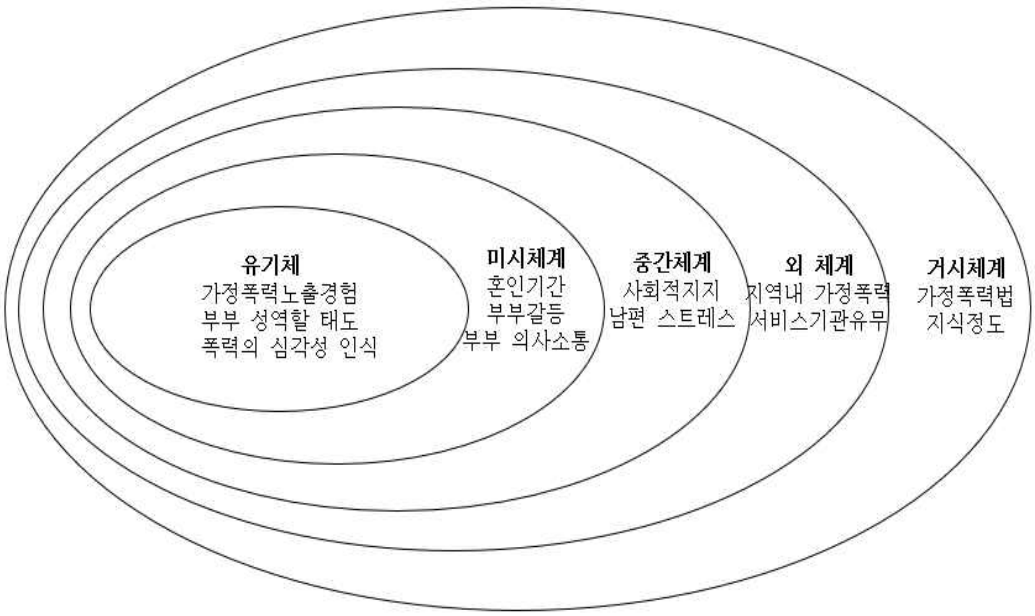
Gelles(1993)는 가정폭력을 가족 간의 갈등, 스트레스, 관계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학대자와 피학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가정폭력이 가족체계 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았기에 전적으로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성(Gender)보다는 부부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적 폭력(expressive violence)이라고 설명한다.

그 외에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순환성(circularity), 항상성(morphostase), 경계(boundary)를 들 수 있다. 순환성은 하나의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는 것이며, 항상성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경계는 개인과 체계를 둘러싸고 외부의 접촉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이남옥, 2011).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1995)의 생태체계모형과 가정폭력의 관계를 김정란·김경신(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림 2-2] 와 같이 제시하였다.



* 출처 : 김정란·김경신(2003)의 연구를 재구성.

[그림 2-2] 생태체계 모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문제음주

1. 문제음주의 개념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2019년 발표한 Health Statistics[2)]의 의하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7 리터로 OECD 평균인 8.9 리터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2020)에서는 담배의 주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알코올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으며 유해한 음주는 200가지 이상의 질병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8년)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4,9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은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 4,5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흡연 7조 1,258억원, 비만 6조 7,695억원 보다 많은 액수이며 이 비용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는 '폭음(binge drinking), 알코올중독(alcohol addiction), 알코올남용(alcohol abuse), 위험음주(risky drinking),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알코올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Hester, 1995).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는 알코올중독을 질병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소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1994)는 현재 음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에는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알코올중독의 초기 또는 덜 심각한 단계를 문제음주라고 정의하였다.

음주 문제의 심각성과 부작용에 따라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 그리고 문제음주로 분류할 수 있다. 알코올 의존은 신체적 문제, 통제력 상실, 갈망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되며 알코올 남용은 사회적 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2) Health Statistics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6월 말에서 7월초 통계 포털을 통해 회원국의 각종 보건의료 분야 통계를 수집하여 발표한다(2019. 7. 2일 발표자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의된다. 문제음주는 과음과 의존 그리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관해 측정되며 가족관계, 대인관계에 미치는 폐해뿐만 아니라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지는 음주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유채영, 2003).

또 다른 관점으로 문제분류식 접근방법(disaggregated approach)이 있다. 이는 음주운전, 간경화와 같은 건강의 문제와 음주로 인한 범죄 등의 실제적인 문제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하게 습관적인 음주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징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Schmidt et al., 1999).

문제음주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로운음주(harmful use of alcohol)를 들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2010)는 음주자와 그 주변인들과 사회생활에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음주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증가하도록 마시는 음주의 양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문제음주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나 관련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크게 음주량과 음주빈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Baer, 2002).

흔히 음주로 인한 문제 발생 위험의 크기에 따라 '위험 음주(risky drinking)'와 '적정 음주(moderate drinking)'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선호하는 술이 다르고, 알코올 대사 능력이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음주와 관련된 사회 분위기 역시 다르므로 '위험 음주'와 '적정 음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적정음주(moderate drinking)는 음주량과 음주 패턴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 음주(safe drinking), 건강 음주(healthy drinking), 저위험 음주(low Risk drinking), 조절 음주(controlled drinking)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 2017).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3)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국가수준의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순수 알코올 섭취로 환산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하루 40g 미만, 여자의 경우 하루 20g 미만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음주횟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주일에 1회 이하의 음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제시하였다. 이를 표준잔(standard drink)으로 환산하여보면 남자는 1회에 5잔, 여자는 2.5잔 이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표준잔의 의미는 술의 종류나 잔의 크기와 관계없이 음주량 측정을 위한 기준 단위를 의미한다. 순수 알코올의 양(g)으로 표기할 경우 표준 1잔은 약 10g의 알코올(WHO, 2014)로 정의하지만 보건복지부(2018, b)는 7g을 1 표준잔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마시는 술의 양으로 살펴보면 335ml 맥주 캔 1개는 1.4 표준 잔에 해당되며, 21%의 소주 1병은 6.7 표준잔, 900ml의 막걸리 한 병은 약 5 표준잔, 와인은 잔에 따라 1~2 표준잔에 해당된다고 한다(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 2016a).

위험 음주(risky drinking)는 적정음주의 기준을 벗어나는 음주를 총칭하여 사용되며 과음이나 만취 같은 용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에서는 폭음을 남자는 5잔 이상, 여자는 4잔 이상의 술을 연거푸 마시는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2018b)에서는 1회 음주량 남자 5잔, 여자 3잔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표적인 위험음주로 월간 폭음과 고위험 음주를 규정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남자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7잔 이상을 말하며 여자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5잔 이상의 음주를 제시하였다(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 2016a).

지금까지 문제음주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과 문제음주의 기준으로 제시된 음주의 양과 빈도에 관한 세계적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제음주는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렵고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국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문제음주는 음주빈도와 음주량 그리고 고위험음주빈도의 설문 응답을 근거로 AUDIT-C[3] 7점을 절단점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로운 음주, 위험 음주, 술 문제, 음주 문제와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3) AUDIT-C : 세계보건기구(WHO)가 1989년 개발한 자기보고용 설문도구인 AUDIT 10문항 중 1번부터 3번까지 3문항만 사용하여 문제음주자를 선별하는 도구를 말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음주행동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라 남·녀간 차이가 두드러진 행동 중 하나(신원우, 2017)이며 음주의 원인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Maria Bosque Prous et al., 2015). 여성의 음주행동 영향요인은 크게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활동상태, 결혼상태 등의 사회적 관계 요인과 우울감, 자살 생각,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여부와 같은 정신건강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박소연 외, 2018). 또 다른 원인으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나 충격적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허은정 외, 2001).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발표한『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보고를 보면 지난 1년간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에 관한 질문에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 경험율은 53.4%로 2년 전보다 1.1%로 증가하였다. 이는 남성이 2년 전 79.0%에서 77.4%로 1.6%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보여 주목된다.

여성의 음주는 남성의 음주에 비해 음주시작 연령이 늦고 음주빈도와 음주의 양이 적으며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에 음주 시작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하기까지의 시간이 짧고 같은 음주량에도 신체적 폐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방형애, 2015).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음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여성의 음주는 남성음주와 구별되는 현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광기, 2002).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간음주율[4]에 관한 추세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월간 음주율이 약 75%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에 37.5%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7년에 50.5%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남성의 고위험음주율 역시 2005년 이후 이 약 21%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여성은 2005년에 3.4%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 7.2%로 상승하였다. 남성은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 모두 현상유지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4) 월간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을 말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두 지표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음주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여겨진다(통계청·통계개발원, 2019).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음주는 40대까지 고위험음주율이 상승하다가 이후 연령대가 더 높아지면서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여성은 20대에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에서 위험음주율의 분포가 가장 낮으며 중하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계층 간 차이는 크지 않아 남성들은 다 같은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율이 높고 상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남성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음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할 때' 과음을 가장 많이 하는 계기가 되며,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뒤풀이를 할 때', '동창회나 동호회 등 회원들의 회합하는 경우'도 과음을 유발하는 상황에 들어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접대를 목적으로 한 술자리 경험은 적지만 가족 모임에서 과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혼자서 술 마시는 것을 일컫는 '혼술'에 의한 과음도 많은 편이라는 보고를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2018b). '혼술 문화'는 음주를 부추기거나 자주 마시는 요인이 되며 사회적 교류나 친목 도모가 목적이 아니고 음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음주 경험자 중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비율이 66.1%에 이르고 있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고위험 음주자는 혼자 술을 마실 때 소주를 마시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다고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여성 음주를 설명하는 또 다른 예로 '키친드렁커(kitchen drunker)'를 들 수 있다. 키친드렁커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의존증이 된 여성 음주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낮에 가족이 없을 때와 가족들이 모르게 늦은 밤 술을 마시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여성들이 키친드렁커가 되는 이유로 생활 속의 스트레스, 남편의 외도, 고부갈등, 가정폭력을 대표적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빨리 취하기 위하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다고 하며 가족들이 문제를 인지했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때는 이미 알코올중독의 초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여성신문, 2012). 여성 알코올중독자가 남성 알코올중독자에 비해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더 고립적이고(신영주 외, 2009), 수동적이며 우울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인영 외, 2011: Schuckit, 1996).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6.4%가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을 보이는데 1년 유병률도 2.1%에 이른다고 한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일컫는 말로써 여성의 음주는 같은 정도의 술을 마셔도 알코올분해 능력이 약하여 남성보다 해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 내에서 자녀와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성음주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연구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높아지고 있는 여성 음주를 낮추기 위하여 여성 음주 영향요인으로 지목된 스트레스와 우울,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문제음주의 이론적 관점 :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stress coping adaptation theory)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여성의 문제음주 변인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주요한 변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위협요인으로 우울을 구성하였다.

언어폭력 피해는 신체적 폭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여성 스스로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낙인 가능성으로 인해 경찰이나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적 반응으로 음주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각 변인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구조를 파악하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stress)의 사전적 의미는 적응하기 힘든 조건이나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긴장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긴장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 신경증과 같은 부적응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 스트레스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Selye, 1975), 심리학·의학·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스트레스 연구가 시작되었고 스트레스를 긍정적, 부정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스트레스 적응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분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생리학자였던 Cannon(1939)은 초기에 생물학적 접근에서 스트레스와 유기체의 신체 질병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급성스트레스 반응인 투쟁-도피-반응(fight-or-flight response)를 주장하였다. 초기 연구자들의 연구가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였으며 스트레스 유발 자극에 대한 적응기제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현주, 2011).

Beehr & Newman(1978)은 개인이 정상 기능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신체적 상태로 변화시키거나 파괴하는 조건으로 정의해 외적 자극뿐만 아니라 불안유발과 같은 개인의 내적 자극도 포함하였다. 부정적으로만 생각되던 스트레스의 관점이 이 당시에 전환기를 맞이했고 부정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긍정적 스트레스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양면성을 확인하면서 정적 스트레스(eustress)와 부적 스트레스(distress)로 구분하였고 이외에도 과다한 스트레스(hyperstress), 너무 적은 스트레스(hypostress)로 구분되었다(심정원, 2020; Selye, 1975). 정적 스트레스(eustress)는 인간이 도전을 추구할 때 흥분하는 것처럼 운동경기를 관람하거나 생활의 변화로부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긍정 스트레스(eustress) 또는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로 불리우며 삶의 유용한 에너지원이 된다. 부적 스트레스(distress)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긴장 상황을 말하며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 역기능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유발원인에 관한 자세한 분류 및 내용은 <표 2-3>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3>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의 원인	외적요인	물리적 환경	소음, 빛, 열, 더위, 닫힌 공간, 편리함의 감소	
		사회적 환경	조직의 환경	규칙, 규정, 형식적 절차, 마감시간
			사회적 관계	타인의 무례함, 명령, 공격적 태도, 괴롭힘
		개인적 사건	중요한 사건	생로병사, 실직, 사업실패, 승진, 경제적 변화, 결혼, 이혼, 사별, 별거
			일상적 사건	출퇴근, 기계고장, 물건 잃어버림
	내적요인	생활 습관	카페인 섭취, 흡연, 음주, 수면부족, 과도한 스케줄	
		왜곡된 인지	부정적 자기	비관적 생각, 자기 비난, 비현실적인 기대, 사적 감정 개입, 극단적 사고, 과장, 경직된 사고, 완벽주의, 일중독

* 출처 : 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2016b)을 재구성.

심리학 분야에서 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가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Lazarus(1984, 1993)는 스트레스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였는데 인간은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고등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고 하였으며 사건 자체보다는 위협이나 취약성, 대처능력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스트레스는 환경과 개인 간 상호작용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며 건강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것, 정상적 기능을 벗어난 경우로 정의(Beehr & Newman, 1978)되고 부정적 시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Cooper, 1988).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based of stress)로 외적 자극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자연재해, 위험한 상태에서의 생활, 천재지변, 상실, 질병, 죽음과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고민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이현주, 2011).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based of stress)는 어떠한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로 보는 개념이다(최희순, 2018). 반응으로서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스트레스는 신체가 어떤 변화에 직면하여 뇌에서 각 기관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고반응 단계(alarm reaction Stage),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에 최대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항 단계(resistance stage), 스트레스 상황이 아주 심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신체 자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소진 단계(exhaustion stage)로 이루어져 있다(Selye, 1974).

셋째,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transactional of stress)는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 간의 역동인 상호작용으로 보며 개인의 심리과정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인간이 심리적 건강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신혜진·김창대, 2002), 이현주(2011)에 의하면 자극과 반응에 관한 평가가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보고에 의존하기에 스트레스 규명에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김홍규 외(1991)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자극조건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특유 반응을 발생시키는 행동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서 스트레스의 복잡한 본질은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간의 이론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과 긴장을 느끼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우울이 커진 상태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2)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지속력과 통제 불가능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여기에서 지속력이란 살아가는 내내 긴장된 상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통제 불가능은 삶의 불확실성을 일컫는 말로 미래사회에 대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활인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스트레스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stress coping adaptation theory)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Lazarus & Folkman, 1984), 환경에서 오는 자극과 어려움 또는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본다(이현주 외, 2013).

Lazarus(1993)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일차평가(primary appraisal)로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거나 긍정적이라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일차평가는 자신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긍정적 평가와 그 사건이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해롭거나 도전적인 것으로 보는 스트레스적 평가가 있다(최옥주, 2017).

둘째, 이차평가(secondary appraisal)는 일차평가와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데(이현주, 2011), 스트레스 상황을 자신이 통제 또는 대처 가능한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스스로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한다.

셋째, 재평가(reappraisal)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평가는 항상 달라지며 때때로 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이전에 스트레스로 평가했던 상황을 긍정적인 평가로 바꾸게 되어 스트레스가 감소되지만, 재평가가 항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거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대처(coping)'가 사용된다. 대처는 개인의 수용 능력을 위협하는 내재적이고 외재적인 요구를 다루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적이고 인지적인 노력을 말하며(Lazarus & Folkman, 1984; Moos & Schaefer, 1993),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역기능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며 평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가능하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지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느냐 아니면 조절할 수 없는 정도의 위협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임민주, 2019).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coping)에 관한 관점에 따라 학자들의 해석과 대처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Moos & Billings, 1982). 적극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도움이나 정보를 얻으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식을 말하며, 소극적인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며 자신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행동을 하는 대처방식을 말한다(최희순, 2018).

정서중심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분류되며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하기, 스트레스 사건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를 회피하기, 문제 상황의 긍정적인 면에 주의 기울이기, 시간을 지연시키며 충격 완화하기, 운명으로 돌리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정서중심대처는 자기통제, 거리두기, 사회적 지지추구, 도피·회피 반응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장지은·최희승, 2016), 여기서 자기통제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노력을 말하며 거리두기는 스스로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려 노력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조망한다는 견해이다. 사회적 지지추구는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정보를 찾는 것을 말하며, 도피·회피 반응은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 정서중심 대처의 예로 독서, 수면, TV 시청, 음주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 대안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일컫는다(Carver et al., 1989).

문제중심대처는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극복을 위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좌절을 극복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Cohen & Hoberman, 1983). 문제중심대처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공격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Cohen & Hoberman,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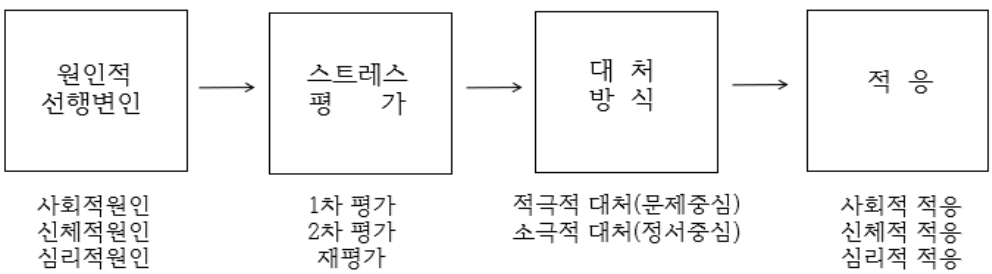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반적으로 위해적, 위협적 또는 도전적인 환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며, 위해적, 위협적, 도전적인 환경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될 때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이옥정, 2010).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대처나 문제중심의 대처를 선택한 개인은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적응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재구성을 거쳐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변화된 상황에 점차 익숙해지는 과정(이현주 외, 2013)이며, 변화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까지 포함된 다차원적 변수를 고려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박수현, 2006). 적응은 개인을 주어진 환경에 맞추는 과정과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으로 구분되며 환경 내 조건에 관한 개인의 인지와 대처방법에 따라 적응적 균형에 도달하는지 환경과의 부적응적인 상태에 머무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Turner & Avison, 1996). 적응의 결과는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적응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으로 사회적 기능, 신체적 건강, 안녕이 제시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은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적 선행변인에 대한 1차, 2차, 재평가과정을 거쳐 개인이 선택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적응과 부적응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의 내용을 Lazarus & Folkman(1984)의 이론에 기초하여 [그림 2-3] 과 같이 정리하였다.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Stress-Coping-Adaptation Theory)



* 출처 : Lazarus & Folkman(1984)을 재구성

[그림 2-3]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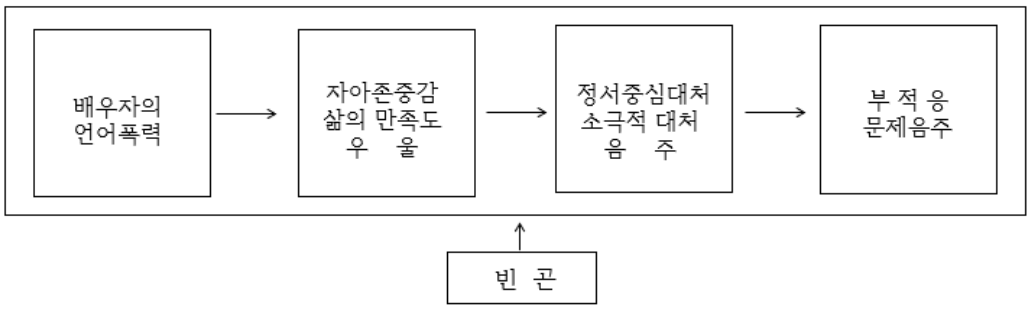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를 설명하는 본 연구의 이론 틀은 [그림 2-4]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언어폭력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작용하며 우울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여성이 부정적 정서의 감소 또는 긴장감 감소를 위하여 자신과 주변의 지지자원을 탐색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위한 대처행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우울이 높아진 여성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를 선택하지 않고 회피와 도피반응으로 일컬어지는 정서중심의 소극적 대처방법을 선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중심 대처는 상황의 개선이나 해결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의 감정과 반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대처 행동으로 음주를 선택한 결과 부적응 상태인 문제음주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가정을 근거로 배우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겪은 여성의 스트레스 대처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Stress-Coping-Adaptation Model)



[그림 2-4] 본 연구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간호사, 간호대학생, 감정노동자 또는 청소년이 관심의 대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중 음주 또는 폭력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기술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며 그 외에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양승희 외(2003)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연구결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결석이나 수업 참여도와 같은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여자대학생들은 음주문제가 많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중심대처가 많이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증상 또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지각과 우울의 높은 상관이 있음을 함께 기술하였다.

우정애(2017)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언어폭력과 성희롱 그리고 신체적 위협을 겪은 후의 정서적 반응과 그 대처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경험한 이후 그에 대한 대처로 정서중심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언어폭력 이외에 성희롱과 신체적 위협의 대처양식도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재희(2012)는 학대 외상 경험을 가진 여성 알코올중독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학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문제중심대처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성 알코올중독자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방법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대처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윤(2008)은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 원인이 술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알코올중독은 선행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그 결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어서 스트레스의 결과로 문제음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와 인과관계의 방향이 다르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음주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선택한 방법이지만 알코올중독상태에서는 음주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금선 외(2003)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음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음주문제와 스트레스대처 유형 사이에서 문제중심대처는 유의한 상관이 없고 정서중심대처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음주문제가 많은 학생일수록 정서중심대처의 사용이 많으며 음주문제와 스트레스의 증상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음주문제와 스트레스 증상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스트레스 증상이 클수록 음주문제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 외에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다른 주제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유경(2005)은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 문제중심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단체로 하는 스포츠 종목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과업중심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청소년 시기에 타인과 어울리는 활동은 문제해결 능력의 고취에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윤재연(2009)은 대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게 되며 자아탄력성의 요소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함철호(2018)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낮은 스트레스 원인에는 자아존중감이라는 내적 자원이 있고 제공기관 내에서 동료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을 대처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하였다. 직무만족이라는 종속변수는 적응을 의미하며 적응은 직무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청소년(김정현 외, 2016)과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는 문제지향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대처가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게 하였고 소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기타, 가족갈등과 스트레스(이영아·장원철, 2010), 대인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성장(윤명숙·박아란, 2015)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신현숙·구본용(2001)은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진을 예방하며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폭력과 음주와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처로 문제중심대처방법 보다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의 사용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가설을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문제음주의 대처자원과 위협요인

1. 대처자원으로서의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공적이고 유능하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게 되며 자아존중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존재에 대한 가치이며 자신을 향한 평가적이고 감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Rosenberg & Simons, 1971).

심리학 분야에서 자아존중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William James (1890)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또는 성공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최경숙(2007)은 자아개념과 가치판단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정이든 비난이든 가치판단에는 감정적 반응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며 수용하여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하고 있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Freud(1957)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평가 체계의 형성에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가진다고 하였다. Adler(1927)는 인간행동의 목표 지향성과 적극적인 성취욕을 강조하면서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을 만성적인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보았다. Maslow(1970)는 기본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연계점으로 자아존중감을 언급하면서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 중 하나이며 관심과 인정을 받으며 존경받을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갖는다고 하였다.

1960년대 이후 자아존중감은 영향력이 있는 개념으로 많은 연구에 사용되었으나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으나(최경숙, 2007) 대체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신에 대한 평가와 연관지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은영(2008)은 자아존중감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집단 내에서 자아존중감을 형성되고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송진영(2014)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요도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성취 의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미덕으로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달성한 정도를 뜻한다고 한다. 네 번째는 영향력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음주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면 김지훈·강욱모(2016)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의 상실, 박탈감, 가족이나 친구의 사망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알코올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문제음주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본 허만세·손지아(2011)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례가 가정폭력이고(김혜정,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폭력의 지속시간이나 심각성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Semmelman, 1983). 남편의 구타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으로 인하여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정춘숙, 2003).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도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인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박지현, 2012), 이러한 영향은 성인기까지도 이어진다고 한다(강지영, 200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하여 Elmer(2001)는 인종, 계층, 성별은 미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외모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와 유전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자아존중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인정과 수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인은 가치감(feeling worthwhile), 능력감(feeling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mpetent), 소속감(belonging)으로 가치감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능력감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구성 정도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기초를 말하며, 소속감은 한 개인이 집단의 일원이 되어 그 집단 구성원에게 인정받을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Burns, 1979).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자기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며 자아존중감이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문제음주 사이에서 스트레스의 대처자원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자아존중감의 주요 이론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을 불러올 수 있는 사회환경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자신를 보호하며 회복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이숙현·한창근, 2019). 문제음주의 원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지목되기도 하고(Dehart et al., 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불안이 높아져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찾아볼 수 있다(Carlso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에 대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감정조절이론과 독성이론, 긴장감소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감정조절이론은 자극을 주는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이며, 독성이론은 음주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긴장감소이론은 위기상황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1) 감정조절이론

Gross(1998)는 개인이 어떠한 감정을 느낄지, 언제 느낄지,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표현할지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감정조절(emotion regul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사람은 감정적 자극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며 많은 상황에서 변화시켜서 표현한다고 한다(Koole, 2009).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과정이며(Hyson, 1989),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안내해주고 목표를 성취할 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응이라고 하였다(Brenner & Salovery, 1997).

이러한 감정조절 능력은 자극적인 상황에서 감정의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절제, 인내심, 분노의 조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며 유쾌한 기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Goleman, 1995).

또 다른 연구자들은 적응적 감정조절에 대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 즉 자신의 감정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감정조절에 있어 개인의 감정표현을 자제하고 감추는 일보다 감정적 반응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Ann., 2010). 다시 말하면 적응적 감정조절이란 어떤 특정한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감정경험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Thompson, 1994).

감정조절능력의 규칙을 강조한 학자들에 따르면, 쾌락규칙, 적절성 규칙, 유용성 규칙이 있다고 한다(강은경, 2013). 여기에서 쾌락규칙은 주로 혼자 있을 때 사용되며 유쾌한 감정을 선호하는 개인이 불쾌한 감정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말한다(Clark & Isen, 1982). 적절성 규칙은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적절하다고 여기거나 필요한 방향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Ekman, 1973), 유용성 규칙은 개인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정조절하는 능력을 뜻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에 관하여 Gross(1998)는 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배치, 인지변화, 반응수정과 같은 다섯 가지 단계의 과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Conney NL et al.,(1997)는 감정조절과 정신질환과의 관계에서 경계선 인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관련장애, 섭식장애, 신체형 장애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거나 회피하려는 환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시도를 한다고 하며 부정적 감정의 정도에 따라 음주욕구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음주 충동 또한 증가시킨다고 하였다(허휴정 외, 2014; Cooney et al., 1997).

이숙현·한창근(2019)에 따르면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한 개인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니코틴, 알코올, 코카인과 같은 중독물질을 선택한다고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정서중심 대처보다 문제중심적인 대처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독물질을 남용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이고 이것을 치료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Baker, 2004),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친구나 가족의 사망, 사회적 지위의 상실, 박탈감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쉽게 알코올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김지훈·강욱모, 2016).

(2) 독성이론과 긴장감소이론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독성가설(intoxication theory)과 긴장감소가설(tension reduction theory)은 서로 대립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이숙현·한창근, 2019). 알코올 섭취가 긴장감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긴장감소가설(Conger, 1956)과 달리 독성가설은 반복적인 음주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리적 변화가 자아존중감의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강상경·권태연, 2008; 권현수·성희자, 2010). 독성가설은 병리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알코올 독성으로 인하여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이숙현·한창근, 2019).

사람들이 음주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우울이나 불안,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해소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Young et al., 1990; Holahan et al., 2001).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서 문제음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여(허만세, 2012), 여러 선행연구에서 알코올이 스트레스, 긴장,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긴장감소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earlin et al., 1976; Peyser, 1982; Peirce et al., 1994; Russell et al., 1999; Sayette, 1999).

긴장감소이론(Conger, 1956)에 따르면, 알코올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긴장감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 섭취가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대처방법으로 사용되는 속성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행위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성가설과 긴장감소가설 모두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의 원인 또는 결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지, 독성가설은 알코올의 생리적 변화에 관점을 두었고 긴장감소가설은 심리적 이유에 관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관하여 앞에서 기술한 여러 이론 중 감정조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론을 지지하며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스트레스의 해소 또는 부정적 감정의 회피나 조절의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ego), 자아(self), 자기개념(self-concep), 자아상(self-image),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자아정체감(self-identity)과 동의어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대처자원으로서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생활 만족도(living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복지(welfare), 안녕(well-being),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사용되어 왔다(임희섭, 1996; 원두리·김교헌, 2006). 그중에서 삶의 질, 웰빙, 복지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조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주관적 웰빙, 행복, 만족도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다(통계청, 2019).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인 삶의 만족도는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 다양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1980년대 행복이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으면서 '개인의 행복에 관하여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증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도 함께 부상했다고 한다(김형일 외, 2016). 기존에 경제성장의 척도이자 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인식되어 오던 GDP가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GDP와 국가재정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고한다(최은희, 2018).

인간의 행복이 소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삶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족도를 측정하는 종합지수가 나오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UN에서 2012년 이후 매년 발표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5]와 OECD가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6]'를 들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행복도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1인당 GDP, 사회적지지, 기대수명, 인생선택의 자유도, 관용,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같은 여섯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BLI 역시 GDP 같은 단순 소득 비교를 넘어서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 방면 모두에서 삶을 평가하기 위해 주거, 소득과 자산, 일과 직업의 질, 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개인적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같은 11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런 지표 제시로 행복, 삶의 만족과 같은 주관적이며 사회문화적 요인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복지수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BLI(2018년)의 '한국의 삶의 질'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 12%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임금, 고용률, 안전감, 인지된 건강 등에서 남성이 우위를 보이며,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직업 긴장도와 자살, 술 및 약물로 인한 사망에서 여성우위를 보여 남성과 여성에 따라 삶의 질의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자살, 술 및 약물로 인한 사망이 높다는 점은 여성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술이나 약물을 찾게 만들고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심리적, 가정적, 현실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Diener(1984)는 삶의 만족도 지표로 주관적 웰빙 영역을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나눴다. 인지적 영역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이고 정서적 영역은 즐거운 감정과 불쾌한 감정을 의미하는 영역이다(홍석동, 2016).

웰빙(well-being)의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제시된 이론으로 심리적 웰빙

---

5)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2012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1인당 GDP, 기대수명, 복지,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 관용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자료이다.

6) Better Life Index(BLI): OECD가 '물질적 삶의 조건', '삶의 질' 영역에서 11개 요인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자료를 말하며, 국가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는 종합지표로 쓰이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sychological well-being)을 들 수 있다. 심리적 웰빙은 주관적 엘빙이 삶의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심리적 측면의 합을 말하고 있다(김명소 외, 2001).

개인의 삶의 만족에 관하여 정의하고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은 모두 중요하다고 한다(Schalock et al., 2002). 개인의 지각과 심리적 입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삶의 상황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상황 자체만큼 중요하며 개인의 생활에 있어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안정과 불안정,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나 범죄율, 물질적 보유현황, 교통사고 건수와 같은 계량적 수치 또는 통계자료에 근거하며 소득이나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신미, 2011).

어떤 사안이 더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통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행복의 조건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결정 속에는 이미 타자의 욕망이 스며들어와 있다고 한다(유승호, 2009).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한 사회의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습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을 둘러싼 환경요소들의 변화를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를 상대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와 정의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김상균 1996).

임소진(2017)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삶의 만족도는 개념이 모호하다. 둘째, 물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경제지표보다는 전반적 삶의 영역을 파악하고 있어서 포괄적이다. 셋째,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서 규범적이다. 넷째, 개인적 삶의 만족도는 사회 전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개념을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으로 정의하며 각각의 구성요인을 주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측면으로 건강만족도, 직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구성하였으며, 정서적 측면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구성하였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를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그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삶의 만족도의 주요 이론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Festinger(1954)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사회비교 이론(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을 최초로 체계화 하였다. Diener (1984) 이후 확산의 방향을 상향과 하향으로 구분하면서 이 이론이 양방향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기 시작했다. 상향이론은 삶을 구성하는 각 하위 영역에서의 효용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였고 하향이론은 활동성이나 우울성 등 개인 고유의 기질에 따른 삶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각 하위 영역에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irgy, 2001).

사회비교는 타인과 관계 형성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얻고 타인과 비교하는 자기평가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차경진·이은목, 2015). 사회 비교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사람들은 의견과 능력뿐만 아니라 행복, 의사결정, 정신건강, 신체건강, 외모, 정서 등 자신의 머리카락 색깔에서부터 능력이나 소득수준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 것으로 본다(Kruglanski & Mayseless, 1990; Wheeler & Miyake, 1992). 사회비교의 방향 면에서도 하향비교는 자아존중감을 고양해주는 효과가 있고 상향비교는 자아존중감은 하향될 수 있지만 자기 향상이나 개발에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강혜자, 2016).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사회비교이론 중에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1) 상향 비교 이론

상향비교(bottom-up comparison)는 자신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인지한 사람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향상(self-enhancement)시키려고 하는 긍정적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Salovey & Rodin, 1984). Kulik & Mahler(1989)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 타인의 신념과 행동, 태도 등을 파악한 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과의 접촉이 많거나 지속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에 개인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타인 간의 사회 비교가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Goethals, 1986).

이러한 상향비교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 또는 무능감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성영신 외, 2007). 또한,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질투심 갖게 할 수 있으며(강혜자, 2016),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장은영 외, 2004; Lassiter et al., 2001). 상향비교가 실패와 유사한 느낌이나 우울한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지만, 자신보다 더 우수하거나 좋은 상황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소망의 대상이고 자기향상과 발전이 목표라면 하향비교보다 상향비교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강혜자, 2016).

최근 많은 연구에서 SNS의 이용이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임지숙, 2020). Facebook을 이용하는 4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향비교연구 연구(Chou & Edge, 2012)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용자들이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동시에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라고 지각하는 참여자들이 더 우울했다고 보고하였다(정소라·현명호, 2015). SNS 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주관적 행복감이 떨어지고(Turkle, 2011) 우울증을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Mai-Ly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SNS 피로감', '카페인 우울증'[7]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을 보면 SNS 이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항상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현지·정동훈, 2013; 최소영, 2015; 홍지영, 2017; 성주원, 2020).

SNS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속에서 보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노출된 시청자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출연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강제 비교(forced comparison)하게 되며(Goethals, 1986), O'Guinn & Shrum(1997)은 연속극 시청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실제 사실보다도 부유한 것으로 믿게 만든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다큐멘터리, 시사, 뉴스, 생활정보, 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프로그램의 시청은 소비문화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어떤 영향도 없지만 토크 프로그램, 연예정보, 드라마, 시트콤 등의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는 물질주의와 계층 지향 소비를 조장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금희조, 2006).

---

7) 카페인우울증 :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에서 유발되는 우울증을 말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광고를 통해 표현된 이상적 이미지와 자신을 상향비교한 소비자 역시 자신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상승되었고 광고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올리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Richins, 1991; Martin & Kennedy, 1993), 특히 광고 속의 모델과 본인의 매력을 비교한 다음 신체적 만족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승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Richins, 1991).

상향이론은 결혼 여부, 수입, 직업, 학력과 같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기쁨이 모여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Diener, 1984)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로서 사회적 성취를 이룬 타인은 우리의 자아개념과 자아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임지숙, 2020).

(2) 하향 비교 이론

초기의 사회 비교이론은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상향비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위협이 예고된 상황에서 나보다 더 열등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하향비교가 일어난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Wills, 1981).

자신보다 더 열등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비교를 하향비교(top-down comparison)라 정의하며(차경진·이은목, 2015), 하향비교는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는 삶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자아존중감, 성격, 적응능력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행복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Diener et al., 1997). 아울러 자신의 정서가 다치지 않게 하는 자기방어 욕구, 친화 욕구, 주관적인 안녕 증진과 자기 고양 성취 및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거나 지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차경진·이은목, 2015).

하향비교는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아지고 열등감이나 낙담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줄어드는데(Wills 1981; Wood et al., 1985; Wheeler & Miyake, 1992; Aspinwall & Taylor, 1993; Reis & Gibbons, 1993), 자신과 하향비교 대상과는 더욱 다르다고 지각하여 비교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장은영, 2008).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 만족감, 우월감, 안정감을 자주 느끼며 하향비교를 하는 사람이 상향비교하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보고가 있다(Hill & Martin, 2012).

인간에게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하고자 하는 자아평가(self-evaluation)의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자아상승(self-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nhancement) 욕구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과 비슷하지 않거나 더 열악한 수준의 타인과도 비교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Wood, 1989). 구재선·김의철(2006)에 따르면 행복에 대한 하향 접근하는 방식은 사건이나 환경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안정적 경향성이 존재하고 행복은 이러한 경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Diener & Larsen(1984)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52%가 하향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고, 23%는 수입, 학력, 직업과 같은 상향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Andrews & Withey, 1976; Emmons & Diener, 1985; Ryff & Carol, 1989).

하향비교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한 연구와 달리 비판적인 시각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고명철(2013)에 따르면 하향비교는 개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개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 정책이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그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은 모든 개인이 같을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향비교는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며 그 판단으로 인해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고 상향비교는 자기향상의 긍정적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언어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고 부정적 정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며, 발생한 부정적 정서가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위협요인으로서의 우울

1) 우울의 개념

지속적인 생활 스트레스 사건들은 인생의 크고 강렬한 사건보다 개인의 심리적인 증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 정서 상태를 유발(Kanner et al., 1981)하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우울 증상은 지속(Depue & Monroe, 1986)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정신질환과 심리적 고통이 지나친 경쟁으로 생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불안과 스트레스가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Open Ads, 2019).

우울은 인간의 여러 감정 중의 하나로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는 정상범주로부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비정상 범주까지 다양하게 나뉠 수 있으며(김혜정, 2005), 우울에 빠지면 슬픈 감정, 좌절감, 허무감, 무가치감, 절망감, 고독감과 같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부정적정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였다(함정선, 2016). 이러한 증상은 생각의 내용, 사고의 과정, 수면, 의욕, 행동, 동기, 관심과 같은 정신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의 저하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질환 백과, 2020).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우울증은 2030년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우리나라도 전 세대에 걸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13년 약 59만 명에서 2016년 약 64만 명으로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남·녀 간의 우울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 9.1%, 여성 13.4%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게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실제로 사람들은 생애 한두 번 정도는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경, 2003), 재발율도 높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 중 50~60%는 우울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김정민, 2017).

우울의 원인으로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유전성은 30~70% 정도이며 생물학적 원인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결핍으로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고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생애주기 및 사건, 연령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우울 수준도 다르게 나타나며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 이후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우울의 발생도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다(강상경·권태연, 2008; 김진영, 2009; 이홍자 외, 2016; 엄순옥·문재우, 2017; 조옥선·백진아, 2018).

성별에 따른 우울의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 우울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부분, 과중한 책임 및 사업의 실패, 직장 문제 등이 중요하게 지적되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족갈등 등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스트레스의 요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오세원·엄용섭, 1980). 또한, 여성은 가정과 직장에서 다중역할부담으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이 생물학적 역할보다 크게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이경혜, 2006; 하오령·권정혜, 2006; Aneshensel et al., 1981; Warr & Parry, 1982). 즉 여성은 직장, 가사노동, 자녀부양부담감 등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우울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역할수행 부담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김은정 외, 1999).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은 만성적인 불안, 수치심, 낮은 자존감, 학습된 무기력, 죄책감으로 나타나고 폭력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며(Hilberman, 1980; Walker, 1984), 우울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광일, 1998; Launius & Lindqist, 1988).

우리나라 여성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으로 타인 중심적 사고와 가정 중심적 사고를 들 수 있는데 여성은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고, 특히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우울증이 나타나기 쉽다고 한다(이숙정, 2011).

우울은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본이고 일차적인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울을 악화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낮춘다고 한다(하은혜 외, 1999). 또한, 우울은 자신의 심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의 손실로 이어져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엄순옥·문재우, 2017).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여성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학습된 무기력감이 나타나 삶을 영위하는데 적절한 대처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가정하였으며 우울증, 우울장애, 기분장애, 우울병, 울병, 우울감 등과 동의어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2) 우울의 주요 이론

우울은 원인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우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우울의 원인에 관한 요인 중에서 유전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은 우울을 뇌의 생화학 물질의 변화로 설명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리사회적 요인은 스트레스와 생활 사건을 주된 원인으로 설명하며, 이 세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차병원, 2020).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음주가 부정적 감정의 감소와 긍정적 감정의 증가를 가져오며 부정적 정서의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을 때 대처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한금선 외, 2003). 이러한 경향은 우울에 대한 대처의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기도 하며(Greenfield et al., 1998) 음주가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이봉재, 2007).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주요 이론으로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인지이론과 학습된 무기력이론의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지이론

Aaron Beck의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of depression)은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Beck(1963)은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유연상, 사고내용, 상상, 꿈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사고내용에 분노보다는 자기부정, 절망, 좌절, 실패와 같은 부정적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권석만, 2006). 이러한 부정적 사고를 구성하는 인지적 왜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Beck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인지삼제(cognitive triad)라고 정의하였다. 첫 요소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세상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며, 세 번째 요소는 미래에 대한 어두운 시각과 예측을 말하고 있다(김원, 2015).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이유는 인지적 오류 때문인데 우울과 관련된 인지 오류는 신속하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뜻하는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와 개인의 부정적인 태도나 신념을 뜻하는 역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를 들 수 있다. 자동적 사고는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인지로 역기능적 태도는 자동적 사고에 비해 안정적이며 성격 특질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장유경 외, 2007).

우울한 사람들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자신과 주변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신념(dysfunctional belief)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런 신념으로 인하여 사회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계는 더욱 고립되고 위축되며 이 과정에서 우울은 악화되고 자신과 주변에 대한 부정적 생각 역시 강화된다는 것이다(권석만, 2006).

우울에 관한 인지이론의 또 다른 관점으로 김정범·이상희(2006)는 우울증에 관한 Beck의 이론이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diathesis)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개인의 취약성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우울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초기 학습의 결과로 역기능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며(이강준, 2006), 이런 믿음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의해 우울이 유발되는데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건은 우울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정범·이상희, 2006).

똑같은 사건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인지하는 경우 우울 발생은 높아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의 특질과 환경도 우울에 중요한 요인이며 여기에는 인지적 왜곡이 작용하고 있음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귀인이론

귀인이란 어떠한 상황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고 어느 곳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조혜진·나혜림, 2018), 개인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뒤따르는 행동이 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김수진, 2015; Kelly & Michela, 1980).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학습된 무기력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bramson et al.,(1978)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자들은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의 원인에 대한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울의 양상이 달라지고 이러한 귀인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울증에 취약한 개인은 독특한 인지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귀인이론에서 어떤 개인은 '부정적 해석 성향(negative explanatory style)'을 지니고 있어서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긍정적 사건이 일어나면 외부의 원인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적 해석 성향과 반대되는 개념은 '자기 지지 성향(self-serving attributional style)'인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성향은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훨씬 많은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김원, 2015).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부귀인은 어떤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태도, 성격, 습관, 동기, 정서와 같은 내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Heider, 1958). 부정적 사건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원인을 찾게 되며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Fiske & Taylor, 1991).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과 스트레스 사건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이 예측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김정미·조현재, 2009; Kraajj et al., 2003)를 통해 내부귀인은 안정적·전반적 귀인의 결과라고 하였다(민예술·김창대, 2018).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두 이론 중 어느 한 이론을 지지하여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특정한 사건을 대하는 개인에게 인지와 귀인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우울증, 우울장애, 기분장애, 우울병, 울병, 우울감 등과 동의어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제4절 빈곤

1. 빈곤의 개념

빈곤(poverty)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일정한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양상'(이현주 외, 2012),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결핍되거나 기회가 제한되어 기본적인 욕구 및 자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김세진, 2019), '소득의 부족'(Kuklys & Robeyns, 2005)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UN(United Nations)은 선택과 기회의 박탈이며 인간 존엄성을 위배하는 것이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의 제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8]에서 정의한 빈곤은 명백히 복지가 박탈된 상태를 말하며 경제적 기회, 교육, 보건과 영양, 그리고 권한부여(empowerment) 및 안전에서의 인적 박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8) 세계은행(world bank) : 개발도상국에 대부금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을 말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ECD는 박탈(deprivation)의 여러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제약이라고 밝히고 있어(방설아, 2019) 주로 박탈의 관점에서 빈곤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빈곤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자원의 결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양질의 직업 환경의 상실, 자존감이나 건강상태의 악화와 같은 인적자본의 결핍과 같은 간접적인 자원들까지 포함(김소정, 2018)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빈곤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의 빈곤계층에 적용해도 되는 최소한의 기준(poverty line)이 필요하며(Klugman, 2002), 이러한 빈곤선은 '인간적인 삶의 유지를 위한 물질적 자원이 없으면 빈곤한 상태'(Haralambos et al., 1991)라는 가정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한다. 빈곤선은 최소 수준의 소득(Ravallion, 1992)을 말하며 세계은행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9] 하루 1.25 달러(USA)를 그 기준으로 발표하였다(Ravallion et al. 2009).

여성의 관점에서 빈곤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력단절은 여성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pearce)'로 이어진다고 보고한다(정세미 외, 2020). 빈곤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임금(김종숙 외, 2006) 그리고 가족구조 내에서 돌봄의 이중적 역할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홍백의·김혜연, 2007).

아내 학대와 빈곤의 관계에서는 빈곤이 아내 학대를 높인다는 일방향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학대가 피해 여성의 빈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박언주·김효정, 2015; Brush, 2003; Mechanic et al., 2008; Goodman et al., 2009). 그 이유는 빈곤이 학대 남편에게로 의존을 심화시켜 탈 폭력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되는 악순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 학대로 인한 피해 여성의 빈곤은 불완전한 교육과 손상된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고용의 상실, 고용환경의 악화, 사회적 지지로부터의 단절 등 여러 제한된 기회들로 나타나며 긍정적인 기회의 박탈에 따른 무기력(helplessness)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김소정, 2018).

빈곤은 연구자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여러 갈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

9)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구매력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의 개념을 제시한 Rowntree(1899)는 절대빈곤을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상태로 보았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란 음식, 주거, 의복 등을 말하는 것으로 빈곤선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에서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양승일. 2015).

김진욱·김선형(2019)은 수입이 육체적 능률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갖기에 충분하지 못한 가구를 일차적 빈곤으로 보았고 수입을 도박이나 음주 등에 소비하지 않았을 경우는 빈곤선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이차적 빈곤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절대빈곤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최저생계를 위한 역량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김지현, 2015),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 가족은 빈곤하다'(Joseph & Sumption 1979)와 같은 정의를 낳기도 했다. 절대적 빈곤은 사회구성원들의 취향, 가치관, 생활 수준을 고려하지 않기에 소득 불평등의 개념으로 쓰이지 않으며 어느 사회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은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양승일, 2015).

절대적 빈곤은 빈곤선의 제시를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른 계층과 상대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측정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빈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현, 2015).

이 개념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나 음식, 주거, 의복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social basic needs)의 합의가 어렵다고 주장한 Townsend(1979)에 의해 제시되었다. Townsend는 정치 활동의 참여, 사회적 역할 제한, 관습적 행동의 배제를 촉발하는 사회적 박탈을 상대적 빈곤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사회적 참여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지현, 2015).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정의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수영, 2018),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갖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회와 국가마다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김지현, 2015).

보통의 경우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한 비율 이하로 정의되고 있지만(김진욱·김선형, 2019), 사람들의 생활행태 측정이 불가능에 가깝고 정책이 인위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체적 빈곤선의 결정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한 사회에서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는데 불구하고 소득의 격차가 커진다면 상대적 빈곤은 사라지지 않으며(김수영, 2018), 소득의 분배가 공정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나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정영태, 2006).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과 다른 점은 기본적 욕구가 특정한 사회 전반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과 같은 단일차원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세진, 2019).

3) 다차원적 빈곤

다차원적 빈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지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경혜, 2011).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욕구가 서로 다르고 매우 다양하여서 다차원적 빈곤에 관한 개념의 정의는 같은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상이하다고 한다(김희정·김윤태, 2020).

국제연합(UN)은 '다차원적 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를 별도로 측정하는데 다차원적 빈곤지수는 교육지표, 건강 지표 및 생활 수준 지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김수영, 2018). 여기서 교육지표는 가구원의 교육 기간과 아동의 학교 수업 참여로 구성되며 건강 지표는 아동 사망률과 영양실조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생활수준 지표는 전기,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방바닥(floor), 조리용 연료와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자전거 또는 냉장고와 자동차 자산의 소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김윤태·서재욱, 2015).

Alkire & Foste(2007)는 다차원 빈곤지수의 지표로 고용 및 노동, 건강, 교육, 소득, 자산, 주거와 같은 6개 차원의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Sen(1985)은 '능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빈곤 측정에 활용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리나라에서는 서병수(2007)가 화폐적 지표로 소비를, 비화폐적 지표로 학력, 주거 만족도, 건강상태, 인간관계, 종사상 지위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선정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에서는 공통으로 교육과 건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과 건강이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광범한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윤태·서재욱, 2015).

2. 빈곤의 주요 이론

본 연구에서는 빈곤에 대해 박탈이론과 사회배제이론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박탈이론은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삶의 영역에서 욕구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는 전반적 상황에 관점을 두고 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문제음주인 여성이 빈곤에 처하게 되었을 때 겪는 자원의 결핍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조망하였다.

1) 박탈이론

World Bank(2001)는 빈곤을 소득이나 기초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와 무기력, 정신질환, 발언권의 부재, 취약성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의 박탈(depriv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윤태호(2010)는 빈곤과 박탈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는데 빈곤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박탈은 재정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Sen(1985)은 능력 박탈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겪는 박탈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김수영(2018)은 소득에서 파악되지 않는 '능력'을 박탈의 개념으로 보고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Lelli(2008)는 경제적 조건,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 우울, 문화 활동, 건강과 주거, 근로 조건을 능력 박탈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박탈의 경험은 불평등인식과 관계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며 박탈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회가 불평등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이웅·임란, 2014). 박탈은 절대적 박탈(absolute deprivation)과 상대적 박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elative deprivation)로 구분되며 절대적 박탈은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빈곤선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특정 가구의 소득 간의 차이로 인한 절대적인 결핍이나 부족을 의미하며 상대적 박탈은 성취능력과 기대 가치 간의 격차로 발생한 특정 가구의 열등감, 자격지심, 불만과 같은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심영, 2015).

절대적 박탈이 저소득층에서 경험하는 박탈이 부족과 결핍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상대적 박탈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심영, 2015).

2) 사회적배제이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Max Weber에 의해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형태로 이해되었다. 전통적인 빈곤의 정의가 소득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개념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신동환, 2014).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되거나 거절되는 상황(Blackhart et al., 2009)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에서 무시당하거나 의도적으로 소외당하게 되면(Williams, 2007) 소속감, 통제감, 의미 있는 삶, 자존감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위협받게 된다고 한다(Sebastian et al., 2009).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재화의 부족 및 필요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사회집단, 제도, 개인, 지역, 국가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한다(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특징으로 행위의 주체(agency), 역동성(dynamics), 상대성(relativity)을 들 수 있는데(Atkinson 1998), 배제는 그 의미가 사회마다 다르고 구성원의 행동에 원인이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지현, 2015).

사회적 배제와 여성 빈곤에 관련된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Diana Pearce(1976)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는 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빈곤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여성의 빈곤은 경제적 빈곤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리·사회적 빈곤과 같은 다차원적인 사회구조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석재은, 200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과정에 의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멀어진 여성(김혜정, 2015)의 사회적 배제 과정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빈곤은 한국 복지패널의 기준을 근거로 첫째,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둘째, 가구균등화지수를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를 빈곤층이라고 보았으며 저소득, 가난, 궁핍, 물질적 자원의 부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제5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동향

1) 배우자 폭력과 문제음주

그동안 배우자 폭력과 음주문제의 영향 관계에 대한 탐색은 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장수미, 2008).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경험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살펴보면 남성의 음주가 폭력피해에 선행한다는 주장과 폭력을 원인으로 여성의 음주문제가 발생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조자영·이경민, 2015). 음주가 폭력피해를 발생시킨다는 모델은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폭력 피해경험이 여성 문제음주의 원인이 된다는 스트레스-대처 이론(stress-coping theory)과 자가처방가설(self-prescription hypothesis)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스트레스-대처이론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적극적 대처 또는 정서적 대처를 통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음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폭력피해로 인한 신체적 증상 또는 정서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반복된 음주는 의존으로 이어지고(Cunradi et al., 2002) 여성의 사고능력을 둔화시켜 재 폭력 피해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예측된다고 주장하였다(Cattaneo et al., 2007). 특히,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 외상을 대처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ark & Foy, 2000; Harrison & Willis, 2000; Lipsky et al., 2005).

18세 이상의 여성 2,729명의 분석한 자료에서는 폭력피해 이후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여성이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결과를 발표하였다(Gatz et al., 2005).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장수미(2008)는 145명의 배우자폭력 피해여성 중 26.2%가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진엽 외(2010)의 연구에서도 124명의 배우자폭력 피해여성 중 15.7%가 위험음주자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남성의 음주가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는 임구원(2013), 송진영·심정수(2014), 송진영(2015)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조미숙(2012)은 배우자폭력 가해자 중 51.4%가 알코올중독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배우자 폭력과 음주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윤명숙(2012)는 남성의 문제음주가 증가할수록 배우자 폭력이 증가하며 배우자 폭력을 매개로 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남성의 음주가 폭력 발생의 예측요인으로 제시한 연구가 있고 선행요인인 배우자 폭력으로 인하여 여성의 음주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폭력과 음주문제의 관계를 선행조건이나 인과관계로 파악하기보다 두 요인의 상호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로 강조되기도 한다(Campbell, 2004).

다시 말하면, 배우자의 폭력과 음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두 요인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제음주의 대처요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음주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김정숙·임영미, 2005; 권현수, 2009),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정선영, 2003; 이각원, 2004; 문영희, 2007; 권현수·성희자, 201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불안, 우울, 슬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음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옥수·김계하, 2001; Moscato et al., 1997; Albright, 1999), 이숙현·한창근(2019)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음주문제와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음주문제의 위험인자(risk factor)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Jessor et al., 2006), 낮은 자아존중감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방해하여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Geisner et al., 2004; Weitzman, 2004; Dawson et al., 2005; Pedrelli et al., 2011).

문제음주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으며(정선영, 2003; 배지현·박현식, 2006; Lipton, 1994)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김승용, 2002; 권태연·강상경, 2007; Bellavial & Murray, 2003)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문제음주와 배우자폭력 간에 자아존중감이 이들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여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송진영,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문제중심적 대처가 가능하며(Raindran et al., 1977), 감정의 혼란에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앞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의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한 음주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되며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의 선택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와 음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은 문제음주를 삶의 방식으로서 사회와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며 여성은 삶에서 발생하는 폭력경험, 사별, 이혼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주목된다(Robbins, 1989). 이러한 보고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시는 이유에 차이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윤명숙 외(2013)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의 음주문제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권현수(2009)는 노인의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빈곤노인의 경우에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문제음주 대책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의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송진영(2014)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으며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문제음주가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연구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으며(이현경 외, 2012),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가 양방향의 영향관계에 있다고 밝힌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Foster et al., 2002).

반면, 중년층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한 김지훈 외(2013)의 보고에 따르면 문제음주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성의 경우에만 우울을 매개로 문제음주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제음주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보다 문제음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우울이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을 중재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인과관계 달리한 경우에도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앞에서 제시한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문제음주의 위협요인

여성의 음주에는 가정폭력 또는 부부갈등이나 시댁과의 갈등과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거나 상실의 경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Straussner, 1985).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한 긴장감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가 알코올 사용을 자극하면 이에 대한 대처로 알코올 사용이 감소 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알코올 사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이자영, 2018).

알코올의존증 환자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직시하지 못할 때 음주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주된 음주 욕구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한귀원, 1996).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우울이며 사람들은 우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지만 문제음주자들의 경우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울해진다고 하였다(이봉재, 2007).

음주와 우울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 건강문제와 우울증이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음주문제와 알코올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김옥수·김계하, 2001; 정슬기, 2007; Hussong et al., 2001; Weitzman, 2004). 정슬기(2008)는 우울과 성장기 스트레스 유발사건 경험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김문두(2004)는 여성의 우울이 알코올 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최보라 외(2010)도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 문제와 우울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신원우(2017)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문제음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지훈 외(2013)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서만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 음주와 우울이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김계하(2004)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이 음주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황윤영·주민선(2007)의 연구에서도 음주는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음주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우울과 음주는 관련이 있다고 연구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영향관계에 대해 점검하여 보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자원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위협요인인 우울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문제음주와 가정폭력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의 문제음주와 배우자 폭력과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조미숙, 2002; 권태연·강상경, 200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윤명숙·조혜정, 2012; 송진영, 2015)가 있으며, 가해자의 음주가 폭력을 매개로 피해자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윤명숙 외, 2012)가 있다. 반대로 배우자 폭력에 의해 여성의 문제음주가 발생한다는 연구는 조자영·이경민(2015)와 김재엽 외(2010)를 찾아볼 수 있다.

가해자의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조성민, 2009), 노인의 음주와 가정폭력(조혜정·윤명숙, 2012), 가정폭력 가해자의 문제음주(차진경·신현주, 2012), 남성 음주와 언어 또는 정서적 폭력(장수미, 2008; 임구원, 2013; 송진영 외, 2014; 송진영, 2015)가 있으며,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아내구타(조미숙, 2012) 등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이다.

한편, 학대받은 알코올 중독자 부인을 위한 프로그램(김혜련·조영희, 2000), 가정폭력을 겪은 알코올중독자 배우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최정민, 2020), 가정폭력과 음주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피해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김주현 외, 201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장수미, 2008), 노인의 배우자 폭력과 문제음주(조자영·이경민, 2015), 폭력 피해여성의 음주 실태와 영향요인(김재엽 외, 2010)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가정에 관점을 둔 알코올중독과 상습폭력의 이중고를 겪는 가정을 위한 국가지원체계현황에 관한 연구(유혜숙, 2017), 음주와 가정폭력의 이해와 개입에 관한 연구(장수미, 2008)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범위를 확장해 가정폭력과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아도 가정폭력 가해자로서의 남성, 문제음주자로서의 남성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여성의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배우자 폭력피해여성이 2019년 10.3%의 수치를 보여(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 2019) 심각한 상황이고 여성의 위험음주와 고위험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를 낮추려는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여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도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피해경험, 영향요인의 탐색에 머물고 있어 문제음주자인 여성의 내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영향관계 탐색이 요구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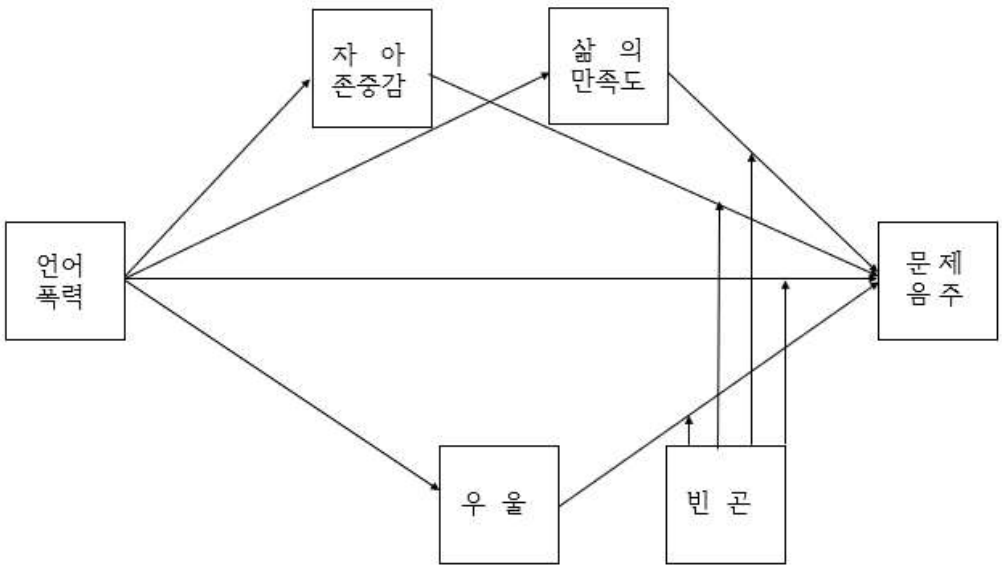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선행연구와 선정된 변수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 확인과 빈곤의 조절효과 확인을 위하여 연구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3-1] 과 같다.



통제변수 : 혼인상태, 가구형태,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상태, 종교, 건강상태, 흡연여부

[그림 3-1] 연구모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모형에서 선정된 변수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로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선정하였으며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속변수로 여성의 문제음주를 선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제14차 자료에서 음주문제를 묻는 AUDIT(alcohol use disorder indentification test) 10문항 중 음주빈도, 음주량, 위험음주량을 묻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AUDIT-C(AUDIT alcohol consumption questions)는 AUDIT 축약형 선별검사로서 높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지닌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라고 주장한 이병욱 외(2000), 우성목 외(2017)의 의견을 지지하며 본 연구의 문제음주 선별도구로 선택하였다.

셋째,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변수로 선정하여 매개효과 측정을 확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활용하였다.

넷째,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매개효과를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실태 만족을 묻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에 관한 문항이다.

다섯째,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 측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우울은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문항이며 측정도구는 CESD-11[10](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d Depression)를 활용하였으며 모두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조절변수로 빈곤을 선정하였는데 일반가구와 빈곤가구를 구분한 기준은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이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거쳐 여성의 문제음주에 이르는 과정에서 빈곤으로 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14차 한국복지패널 설문 문항 중 배우자의 언어폭력, 여성의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빈곤을 변수로 선정하고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0) CESD-11 : 우울증의 선별검사인 자가보고형 척도검사인 CES-D의 20문항 중 11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판 척도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여성의 음주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라 가정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스트레스 대처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위협요인인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의 문제음주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연구모형에 의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아존중감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삶의 만족도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우울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가설 8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다중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9 자아존중감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10 삶의 만족도는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11 우울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문제 3.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에 따른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가설 12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12-1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12-2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12-3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우울을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제14차(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9년 제14차 조사에서는 13차 조사에서 완료된 신규 표본가구 1,477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지역은 17개 시도와 243개 시군구를 포함한다. 조사 완료된 표본가구는 총 6,331가구이며 1단계에서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517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한 뒤에 가구 소득과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 자료로부터 층화이중추출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전체 응답자 14,418명 중 여성 응답자 5,677명을 선별하였으며 그 후 미혼여성과 18세 미만으로 결혼상태와 해당 사항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1,579명의 여성 중 문제음주에 관한 질문 3문항에서 첫 번째 문항인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을 제외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변수에 사용된 배우자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언어폭력,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빈곤과 관련된 문항에 응답한 20대부터 80대까지의 여성 1,23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문제음주의 기준인 AUDIT-C 절단점 7점 이상의 여성 186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 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로 알려져 있다. 통계학적으로 표본 수가 많다는 사실은 표본의 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 세부 단위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조사임을 말한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 유형으로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제14차까지 이루어졌으며 제14차 자료는 2019년에 조사 완료되어 2020년 발표되었다. 제14차 한국복지패널은 조사인력 50명이 2019년 2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93일 동안 17개 시·도, 243개 시·군·구에서 총 6,612가구를 조사하였다.

제3절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4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4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단일차원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항목을 선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하위요인이 없는 변수를 확인하고 변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신뢰도 분석에서는 Cronbach'α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사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요인적재량은 기준 0.4를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Cronbach'α 신뢰도분석은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MOS 24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관측변수의 단일차원 요인분석에서는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 0.3을 기준으로 삼았다.

1. 언어폭력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한국복지패널에서 부부관계를 묻는 관련 3문항 중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이야기'를 경험했는지 묻는 단일문항으로 <표 3-1>과 같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언어폭력 이외에 정서적 표현인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경험을 묻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이 적어 측정변수로 사용이 어려웠다. 언어폭력은 배우자폭력 중 가정폭력의 하위유형(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2019)으로 구분되며, 측정 문항은 ① 전혀 없음, ② 1~번, ③ 3~5번, ④ 6번 이상과 같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언어폭력

문항	척도
배우자로부터 들은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이야기의 경험	1. 전혀없음 2. 1~2번 3. 3~5번 4. 6번 이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문제음주

본 연구의 문제음주에 관한 척도는 AUDIT(alcohol use disorder indentification test) 척도 10개 문항 중 음주빈도, 음주량, 고위험 음주의 빈도를 묻는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AUDIT 척도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험한 음주빈도와 음주량, 알코올 의존증세를 묻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로운 음주 행동 영역 3문항(1, 2, 3번 문항, consumption score), 알코올 의존증상(4, 5, 6번, dependent score)에 관한 3문항, 위험한 음주(7, 8, 9, 10번, alcohol related problem score)에 관한 4문항(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2005)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AUDIT-C는 한번 술자리에서 6 표준 잔 이상의 폭음빈도를 묻는 AUDIT-3와 함께 위험음주자를 선별함에 있어 AUDIT와 선별능력이 대등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이병욱 외, 2000; 우성목 외, 2017) 문제음주를 선별하는 측정도구로 선택하였다. 응답은 '전혀 없음'(0점)에서 '거의 매일'(4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합산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라고 해석하였다(WHO, 2010).

그러나 평균 체중과 신진대사에 따라서 알코올의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64세 이상의 노인은 7점을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제13차 한국복지패널(2018) User's Guide를 참고하여 7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여성을 문제음주자로 구분하였다.

SPSS 24를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제음주의 Cronbach'α 값은 .814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으며, 해로운 음주행동 영역 3문항 중 음주빈도를 묻는 1번 문항의 항목제거시 Cronbach'α 값이 신뢰도계수보다 높게 나왔다. 항목제거 값이 Cronbach'α 값보다 크면 제거되는 것이 좋으나 본 연구를 수행함에 완전하게 측정되어야 할 중요 변수임으로 음주빈도에 관한 항목은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요인적재량은 3문항 모두 0.4를 넘어 기준을 통과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2> 문제음주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문항	척도	요인적 재량	신뢰도	
			항목제거시 Cronbach'α	Cronbach'α
1.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0점 : 전혀 마시지 않는다 1점 : 월 1회 이하 2점 : 월 2~4회 3점 : 주 2~3회 4점 : 주 4회 이상	.474	.830	.814
2.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0점 : 1~2잔 1점 : 3~4잔 2점 : 5~6잔 3점 : 7~9잔 4점 : 10잔 이상	.739	.619	
3.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0점 : 전혀 없음 1점 : 몇 달에 한 번 2점 : 한 달에 1~2번 3점 : 주에 1~2번 4점 : 거의 매일	.815	.496	
분산비율	67.614			
누적비율	67.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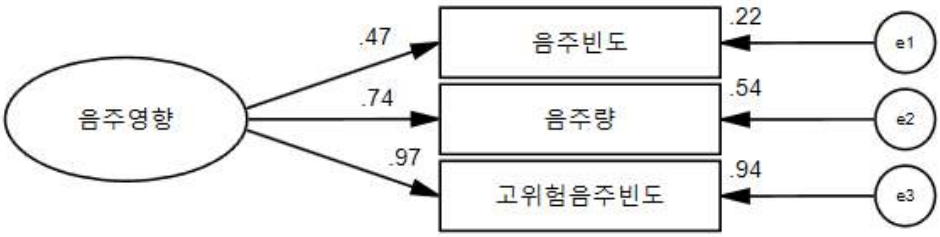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인과관계에서 표준화 값(standardized estimate)은 음주량 .736, 고위험음주빈도 .972(p<.001), 음주빈도 .469를 나타내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SMC 값은 음주빈도 .220, 음주량 .542, 고위험음주빈도 .944로 나타나 고위험 음주빈도가 문제음주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음주빈도는 본 연구의 SMC 값 기준 0.3을 통과하지 못해 관측변수로 사용하기보다는 제거하면 좋겠지만 음주빈도는 본 연구에서 꼭 필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3-3>과 [그림 3-2] 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3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잠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도 높다고 보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3> 문제음주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잠재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SMC
음주	→	음주빈도	.469	1.000				.220
	→	음주량	.736	2.135	.131	16.279	***	.542
	→	고위험 음주빈도	.972	2.483	.182	13.610	***	.944



[그림 3-2] 문제음주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 Self-Esteem Scale(1965)을 활용하였다. 28개의 언어로 번안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Schmitt & Allik(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적 특징에서 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에서 자아존중감을 묻는 질문은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인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으며 그 응답 기준은 조사시점 현재 일이다(한국복지패널 14차, 2019).

10개의 문항 중 부정적 문항인 3번, 5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여 사용하였으며 확인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6개 문항이 요인적재량 0.4를 통과하지 못하여 탈락하였고, 신뢰도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10문항 중 1, 2, 6, 7번 문항이 기준을 통과하여 4문항을 합하여 총점을 구하고 연구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아래 <표 3-4>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4>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문 항	척도	요인적재량	신뢰도	
			항목제거시 Cronbach'α	Cronbach'α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533	.660	.712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522	.657	
3.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역)		.264	.676	
4.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379	.651	
5.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역)		.284	.645	
6.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547	.689	
7. 대체로 만족한다.		.575	.684	
8.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역)		.058	.794	
9.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다.(역)		.203	.698	
10.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		.130	.705	
분산비율	34.931			
누적비율	34.931			

자아존중감의 단일차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인과계수 표준화 값은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67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703,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753, '대체로 만족한다' .729(p<.001)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SMC 값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452, '나는 좋은 성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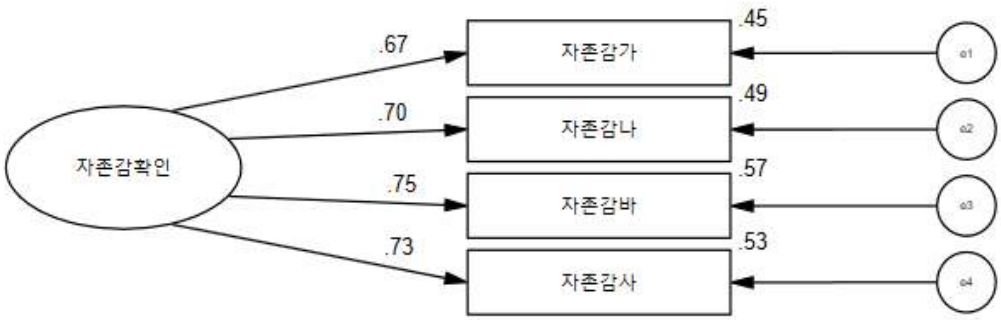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녔다' .494,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567, '대체로 만족한다' .531로 나타나 본 연구의 기준 0.3을 통과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567)'가 잠재변수의 변량을 가장 잘 설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5>와 [그림 3-3] 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표 3-5> 자아존중감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잠재 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SMC
자존감	→	자존감가	.672	1.000				.452
	→	자존감나	.703	1.046	.053	19.766	***	.494
	→	자존감바	.753	1.071	.052	20.612	***	.567
	→	자존감사	.729	1.201	.059	20.237	***	.531



[그림 3-3] 자아존중감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변수는 생활실태 만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건강만족도, 가족의 수입만족도, 주거 환경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전반적만족도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5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만족'(2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 순으로 측정되었다.

<표 3-6>에 제시된 삶의 만족도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만족도 .232, 가족의 수입만족도 .384, 주거환경만족도 .383가 요인적재량이 기준 0.4에 미치지 못하여 탈락되었으며,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에 관한 5항목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선정되었다.

<표 3-6>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문 항	척도	요인적재량	신뢰도	
			항목제거시 Cronbach'α	ronbach'α
1. 건강만족도	1. 매우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232	.801	.800
2. 가족의 수입만족도		.384	.781	
3. 주거환경 만족도		.383	.781	
4. 가족관계 만족도		.403	.781	
5. 직업 만족도		.512	.766	
6.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450	.779	
7. 여가생활 만족도		.442	.778	
8. 전반적 만족도		.716	.750	
분산비율	34.931			
누적비율	34.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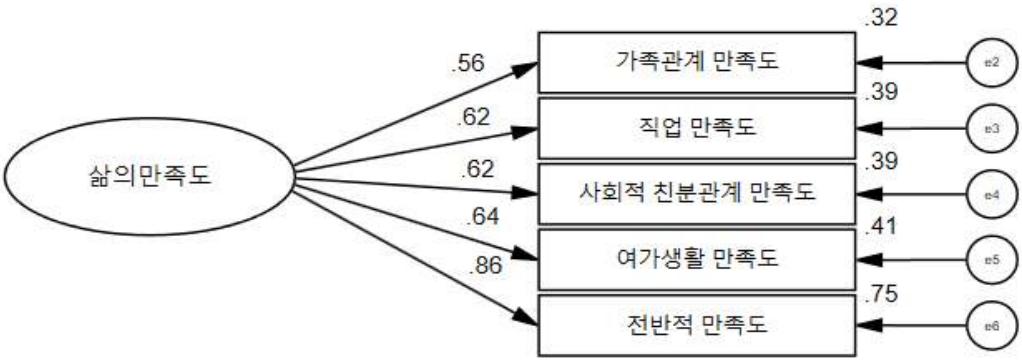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의 단일차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인과계수 표준화 값은 가족관계만족도 .563, 직업만족도 .624,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624, 여가생활만족도 .642, 전반적만족도 .864(p<.001)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SMC 값은 전반적 만족도가 .747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여가생활만족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12, 직업만족도 .390,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389, 가족관계만족도 .317 순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3-7>과 [그림 3-4] 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과한 5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표 3-7> 삶의 만족도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SMC
삶의 만족도	→	가족관계 만족도	.563	1.000				.317
	→	직업 만족도	.624	1.221	.074	16.396	***	.390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624	.961	.059	16.390	***	.389
	→	여가생활 만족도	.642	1.426	.085	16.690	***	.412
	→	전반적 만족도	.864	1.395	.074	18.900	***	.747



[그림 3-4] 삶의 만족도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우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항으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도구로 CESD- 11을 활용하였다. 우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응답을 받았으며 모두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ESD-11은 원척도인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를 축소하여 재구성되었으며, '극히 드물다'(0점)부터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문항 중 2번, 7번 문항을 역 문항처리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잘 지냈다','상당히 우울하다', '잠을 설쳤다','불만없이 생활했다','마음이 슬펐다','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와 같은 6문항을 선택하고, 요인적재량 기준 0.4를 통과하지 못한 '식욕이 없다','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외롭다','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와 같은 5문항을 탈락시켰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3-8>에 제시하였다.

<표 3-8> 우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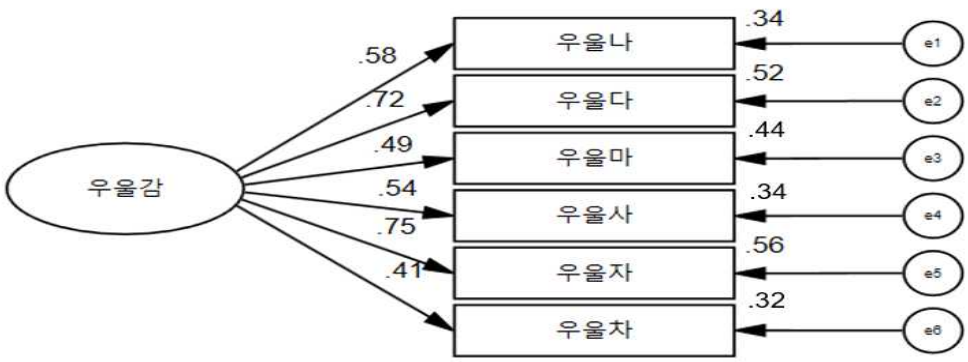
문 항	척도	요인적재량	신뢰도	
			항목제거시 Cronbach'α	Cronbach' α
1. 식욕이 없다.	0. 극히 드물었다. 1. 가끔 있었다. 2. 종종 있었다. 3. 대부분 그랬다.	.267	.823	.831
2. 비교적 잘 지냈다.(역)		.546	.805	
3. 상당히 우울하다.		.482	.807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323	.827	
5. 잠을 설쳤다.		.547	.809	
6. 외롭다		.246	.831	
7. 불만없이 생활했다.(역)		.572	.806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284	.830	
9. 마음이 슬펐다		.414	.816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402	.814	
11,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355	.819	
분산비율	40.348			
누적비율	40.3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울의 단일차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인과계수 표준화 값을 살펴보면 '비교적 잘 지냈다' .580, '상당히 우울하다' .719, '잠을 설쳤다' .485, '불만없이 생활했다' .537, '마음이 슬펐다' .74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414(p<.001)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SMC 값은 '비교적 잘 지냈다' .337, '상당히 우울했다' .517, '잠을 설쳤다' .439, '불만없이 생활했다' .342, '마음이 슬펐다' .56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가 .318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3-9>와 [그림 3-5] 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는 분석을 통과한 6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다고 보았다.

<표 3-9> 우울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SMC
우울	→	우울나	.580	1.000				.337
	→	우울다	.719	1.236	.072	17.183	***	.517
	→	우울마	.485	1.222	.092	13.309	***	.439
	→	우울사	.537	1.106	.077	14.354	***	.342
	→	우울자	.749	1.107	.063	17.452	***	.560
	→	우울차	.414	.249	.021	11.739	***	.318



[그림 3-5] 우울의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빈곤과 통제변수

1) 빈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빈곤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였다. 설문 항목은 1=일반가구, 2=저소득층 가구를, 0=저소득층 가구, 1=일반가구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표 3-10>과 같다.

<표 3-10> 빈곤

문항	척도	더미변수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구분	1. 일반가구 2. 저소득층 가구	1. 일반가구 0. 저소득층가구

2)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들은 혼인상태, 가구형태, 연령대, 교육수준, 주된 경제참여상태, 종교, 건강상태, 흡연여부를 선정하였다. 혼인상태는 연구대상인 여성의 상태를 말한 것으로 기혼상태와 무관한 5=미혼은 제외하였다. 가구형태는 1=단독가구, 2=모자가구, 3=부자가구, 4=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가구, 5=기타 가구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조손 또는 소년소녀가장가구'에서 '소년소녀가장가구'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지만 원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설문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포함된 문구이며 실제로는 조손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연령대는 연속형 변수인 태어난 연도를 20대부터 80대까지 서열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변수의 변환 없이 원자료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종교는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는 1='건강이 아주 안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로 역문항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흡연 여부는 0=비흡연, 1=흡연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이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문제음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양한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허준, 2016). 이 모형은 사회 현상이나 각종 현상의 연구에서 각 요인들 또는 변수들 간의 매우 복합한 인과관계와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모형을 말한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 분석은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측정하고자 의도한 개념이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한편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분석하여 개념 사이의 영향관계를 알 수 있다. 즉,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추정하므로 측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고려하여 개념 사이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측정의 개념과 질 사이에 관한 예측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형을 구성하는 모수의 추정치와 전반적인 적합도의 제시가 가능하고 변수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해하여 제시하므로 변수들의 복잡한 영향관계를 추론하기에 효과적이므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분석이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인과관계 파악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4와 AMOS 24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4를 통하여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AMOS 24를 활용하여 단일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정제과정을 거쳤다.

둘째, 여성의 음주행동 특성과 영향요인 파악을 위하여 AUDIT-C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음주 군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관계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고,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검증을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변수들의 정규성 확보하였으며 Cronbach'α를 확인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 정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넷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구성타당성은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섯째,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maximum likielihood : ML)을 사용하여 모수 추정 방식으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평가를 위해 카이제곱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카이제곱을 이용한 차이검증은 표본 수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쉽게 가설을 기각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해서 Chi-Squre(χ^2)값과 절대적합지수 GFI(goodness-of-fit-index)[11],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12],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13]을,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14], TLI(tuckier-lewis index)[15], CFI(cmoparative fit index)[16]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GFI, NFI, TLI, CFI는 >.90일 때 매우 좋은 모형, >.80일 때 좋은 모형(Bentler, 1990), RMSEA와 RMR은 <.05일 때 매우 좋은 모형, <.08일 때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Brown & Cudeck, 1993).

여섯째, 매개변수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붓스트래핑 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면 구조모형에서 변수들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다른 변수에 의해 중재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고 이를 합한 총 효과를 제시한다.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고려하면 직접 효과만 고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고 변수 사이의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배병렬, 2014).

---

11) GFI :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예측된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관측모형의 상대적인 분산과 공분산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12) RMR : 잔차 제곱평균제곱을 의미하며, 관찰행렬과 추정행렬 사이의 잔차평균을 말한다.
13) RMSEA : 절대적합지수의 일종으로 근사오차 평균제곱의 제곱근을 의미하며, 특히 카이제곱(χ^2) 통계량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4) NFI : 분석된 구조방정식 모델이 기초모델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15) TLI : 증분적합지수의 일종으로 NFI의 편의선을 줄이고자 고안된 지표방법이다.
16) CFI : 모형과 실제 데이터 간의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증분적합지수. 독립모형과 분석모형 모두의 자유도를 고려한 후 괴리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전체가정을 빈곤 가정과 일반가정으로 분리하였으며 경로계수 t 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절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복지패널 제14차(2019)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연구대상 1,233명의 여성 중 유배우자가 전체의 98.0%(1,208명), 사별 9명(7%), 이혼 2명(0.2%), 별거 14명(1.1%)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형태는 단독가구 13명(1.1%), 모자가구 5명(0.4%), 조손·소년소녀가장가구 2명(0.2%), 기타 1,213가구(98.4%)이다.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437명(35.4%), 50대 285명(23,1%), 30대 245명(19.9%), 60대 143명(11.6%), 70대 84명(6.8%), 그리고 20대 30명(2.4%)과 80대 9명(0.7%)로 40대와 50대가 전체의 58.5%로 절반 이상이 해당되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40.6%인 501명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대학교 졸업자 253명(20.5%), 전문대학교 졸업자 227명(18.4%), 초등학교 졸업 107명(8.7%), 중학교 졸업 103명(8.4%), 석사 졸업 23명(1.9%), 무학 16명(1.3%), 박사 졸업이 3명(0.2%)으로 구성되었다.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32.7%의 비율을 보인 비경제활동인구가 403명이었고, 상용직 323명(26.2%), 임시직 253명(20.5%), 무급가족종사자 85명(6.9%), 자영업자 71명(5.8%), 일용직 49명(4.0%), 고용주 24명(1.9%),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종사자가 13명(1.1%), 실업자가 12명(1.0%)이다.

빈곤을 묻는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에서 일반가구는 1,103명(89.5%)이고 저소득층 가구는 130명(10.5%)이 해당된다. 사회복지 패널에서 저소득층의 구분 기준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가 그 기준이다.

종교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8명(41.2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25명(58.5%)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792명(64.2%), ‘보통이다’ 197명(16.0%), ‘아주 건강하다’ 143명(11.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8명(7.9%), ‘건강이 아주 안 좋다’로 응답한 경우는 3명(0.2%)이었다.

마지막으로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98.3%인 1,212명이 비흡연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21명만이 흡연자라고 응답하였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혼인상태	유배우	1,208	98.0
	사별	9	.7
	이혼	2	.2
	별거	14	1.1
	전체	1,233	100.0
가구형태	단독	13	1.1
	모자	5	.4
	조손소년소녀가장	2	.2
	기타	1,213	98.4
	전체	1,233	100.0
연령대	20대	30	2.4
	30대	245	19.9
	40대	437	35.4
	50대	285	23.1
	60대	143	11.6
	70대	84	6.8
	80대	9	.7
	전체	1,233	100.0
교육수준	무학	16	1.3
	초등학교	107	8.7
	중학교	103	8.4
	고등학교	501	40.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문대	227	18.4
	대학교	253	20.5
	대학원석사	23	1.9
	대학원-박사	3	.2
	전체	1,233	100.0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323	26.2
	임시직	253	20.5
	일용직	49	4.0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13	1.1
	고용주	24	1.9
	자영업자	71	5.8
	무급가족종사자	85	6.9
	실업자(구직중)	12	1.0
	비경제활동인구	403	32.7
	전체	1,233	100.0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	저소득층가구	130	10.5
	일반가구	1,103	89.5
	전체	1,233	100.0
종교여부	없음	725	58.8
	있음	508	41.2
	전체	1,233	100.0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않좋다	3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8	7.9
	보통이다	197	16.0
	건강한편이다	792	64.2
	아주건강하다	143	11.6
	전체	1,233	100.0
흡연여부	비흡연	1,212	98.3
	흡연	21	1.7
	전체	1,233	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음주행동 특성

여성의 음주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관련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를 별도 제시하였다. 여성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음주량을 살펴보면 음주빈도에 전체의 40.1%인 495명이 월 2~4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월 1회 이하라고 대답한 여성은 426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고, 주 2~3회는 244명으로 19.8%, 주 4회 이상 음주도 전체의 5.5.%인 68명이었다.

음주량은 582명인 47.2%가 1~2잔, 28.5%인 351명이 3~4잔, 9.5%인 117명이 5~6잔, 7~9잔 정도 마시는 여성은 121명으로 전체의 9.8%,를 나타내었다. 10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여성의 수는 62명으로 전체의 5.0%에 해당되었다. 보건복지부(2018b) 기준인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52.8%에 이르러 적정음주를 하는 여성보다 위험음주를 하는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위험음주 빈도를 나타내는 질문에 '전혀 없다'가 전체의 62.0%로 765명, '몇 달에 한 번 정도' 227명(18.4%),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23명(10.0%),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96명(7.8%), '거의 매일' 22명(1.8%)을 나타내었다. 9,6%의 여성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고위험음주율 7.2%(통계청·한국사회의 동향, 2019)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문제음주와 적정음주를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는 AUDIT-C 3문항에 응답한 총점을 기준 삼았으며 여성과 고령자는 7점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한국복지패널 13차 유저가이드의 권고에 따라 총점 7점 이상이면 문제음주로 7점 미만이면 적정음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를 하는 여성은 186명(15.1%)로 나타났으며 적정음주는 1,047명(84.9%)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 음주행동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음주빈도	월 1회 이하	426	34.5
	월 2~4회	495	40.1
	주 2~3회	244	19.8
	주 4회 이상	68	5.5
	전체	1,233	100.0
음주량	1~2잔 정도	582	47.2
	3~4잔 정도	351	28.5
	5~6잔 정도	117	9.5
	7~9잔 정도	121	9.8
	10잔 이상	62	5.0
	전체	1,233	100.0
고위험음주빈도	전혀 없다	765	62.0
	몇 달에 한번 정도	227	18.4
	한 달에 한두번 정도	123	10.0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96	7.8
	거의 매일	22	1.8
	전체	1,233	100.0
문제음주 (AUDIT-C)	적정음주	1,047	84.9
	문제음주	186	15.1
	전체	1,233	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음주행동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1,233명의 여성을 적정음주군 1,047명(84.9%)과 문제음주군 186명(15.1%)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여 보았다.

연령대와 음주행동 간에는 χ^2=24.378(p<.001) 유의수준에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문제음주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30대가 4.0%, 50대 2.8%, 60대 1.2%, 20대 0.6%, 70대 0.2%, 80대 0.1%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음주행동 역시 χ^2=18.730(p<.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 여성 중 7.4%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전문대 3.2%, 대학교 2.7% 순이었으며, 무학력,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이상이 모두 0.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주된경제활동참여상태에 따른 음주행동의 차이도 드러났으며 χ^2=23.542(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상용직의 문제음주가 전체의 4.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임시적이 4.1%, 비경제활동인구의 문제음주가 3.7%로 나타났다.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0.5%, 0.6%, 0.6%로 비슷하였으며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가 0.4%,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참여자가 0.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교와 음주행동도 차이를 보였는데 χ^2=14.597(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종교가 있는 문제음주자가 전체 여성의 4.3%, 종교가 없는 경우는 10.8%의 비율을 보여 종교가 없는 여성이 종교가 있는 여성보다 문제음주군에 속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혼인상태, 가구형태, 빈곤은 <표 4-3>과 같이 음주행동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3> 음주행동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행동		전체	χ^2/p
			문제음주	적정음주		
연령대	20대	빈도	8	22	30	24.378***
		비율(%)	0.6	1.8	2.4	
	30대	빈도	49	196	245	
		비율(%)	4.0	15.9	19.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0대	빈도	76	361	437	
		비율(%)	6.2	29.3	35.4	
	50대	빈도	35	250	285	
		비율(%)	2.8	20.3	23.1	
	60대	빈도	15	128	143	
		비율(%)	1.2	10.4	11.6	
	70대	빈도	2	82	84	
		비율(%)	0.2	6.7	6.8	
	80대	빈도	1	8	9	
		비율(%)	0.1	0.6	0.7	
	전체	빈도	186	1,047	1,233	
		비율(%)	15.1	84.9	100.0	
혼인 상태	유배우	빈도	178	1030	1208	6.346
		비율(%)	14.4	83.5	98.0	
	사별	빈도	3	6	9	
		비율(%)	0.2	0.5	0.7	
	이혼	빈도	1	1	2	
		비율(%)	0.1	0.1	0.2	
	별거	빈도	4	10	14	
		비율(%)	0.3	0.8	1.1	
	전체	빈도	186	1,047	1,233	
		비율(%)	15.1	84.9	100.0	
교육 수준	무학	빈도	1	15	16	18.730***
		비율(%)	0.1	1.2	1.3	
	초등학교	빈도	5	102	107	
		비율(%)	0.4	8.3	8.7	
	중학교	빈도	14	89	103	
		비율(%)	1.1	7.2	8.4	
	고등학교	빈도	91	410	501	
		비율(%)	7.4	33.3	40.6	
	전문대	빈도	40	187	227	
		비율(%)	3.2	15.2	18.4	
	대학교	빈도	33	220	253	
		비율(%)	2.7	17.8	20.5	
	대학원 -석사	빈도	1	22	23	
		비율(%)	0.1	1.8	1.9	
	대학원 -박사	빈도	1	2	3	
		비율(%)	0.1	0.2	0.2	
	전체	빈도	186	1,047	1,233	
		비율(%)	15.1	84.9	100.0	
가구 형태	단독	빈도	5	8	13	6.053
		비율(%)	0.4	0.6	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자	빈도	1	4	5	
		비율(%)	0.1	0.3	0.4	
	조손소년 소녀가장	빈도	0	2	2	
		비율(%)	0.0	0.2	0.2	
	기타	빈도	180	1033	1213	
		비율(%)	14.6	83.8	98.4	
	전체	빈도	186	1,047	1,233	
		비율(%)	15.1	84.9	100.0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빈도	56	267	323	23.542**
		비율(%)	4.5	21.7	26.2	
	임시직	빈도	50	203	253	
		비율(%)	4.1	16.5	20.5	
	일용직	빈도	8	41	49	
		비율(%)	0.6	3.3	4.0	
	자활근로 등	빈도	1	12	13	
		비율(%)	0.1	1.0	1.1	
	고용주	빈도	6	18	24	
		비율(%)	0.5	1.5	1.9	
	자영업자	빈도	7	64	71	
		비율(%)	0.6	5.2	5.8	
	무급가족 종사자	빈도	7	78	85	
		비율(%)	0.6	6.3	6.9	
	실업자	빈도	5	7	12	
		비율(%)	0.4	0.6	1.0	
	비경제활동 인구	빈도	46	357	403	
		비율(%)	3.7	29.0	32.7	
	전체	빈도	186	1,047	1,233	
		비율(%)	15.1	84.9	100.0	
빈곤	저소득층 가구	빈도	14	116	130	2.113
		비율(%)	1.1	9.4	10.5	
	일반가구	빈도	172	931	1103	
		비율(%)	13.9	75.5	89.5	
	전체	빈도	186	1,047	1,233	
		비율(%)	15.1	84.9	100.0	
종교	없음	빈도	133	592	725	14.597***
		비율(%)	10.8	48.0	58.8	
	있음	빈도	53	455	508	
		비율(%)	4.3	36.9	41.2	
	전체	빈도	186	1,047	1,233	
		비율(%)	15.1	84.9	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음주행동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χ^2=11.697(p<0.01)을 보였고 5보다 작은 기대빈도는 0셀(0.0%)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전혀 없는 집단 1,009명 중 문제음주는 137명(13.6%), 적정음주는 872명(86.4%)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1~2번 있었다고 응답한 여성 133명 중 문제음주 27명(20.3%), 적정음주 106명(79.7%)로 응답하였으며, 언어폭력 경험을 3~5번인 여성 45명 중 문제음주 9명(20.0%), 적정음주 36명(80.0%)의 분포를 보였다. 6번 이상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여성 46명 중에서 문제음주는 13명(28.3%), 적정음주는 33명(71.7%)로 나타났다. 6번 이상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문제음주 비율(28.3%)이 언어폭력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의 문제음주 비율(13.6%)보다 높게 나타나서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언어폭력 1~2번 있었던 경우와 3~5번 있었던 경우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표 4-4>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문제음주여부		전체	χ^2/p
			문제음주	적정음주		
언어폭력	전혀없음	빈도	137	872	1,009	11.697 /.008**
		언어폭력중	13.6%	86.4%	100.0%	
	1~2번	빈도	27	106	133	
		언어폭력중	20.3%	79.7%	100.0%	
	3~5번	빈도	9	36	45	
		언어폭력중	20.0%	80.0%	100.0%	
	6번이상	빈도	13	33	46	
		언어폭력중	28.3%	71.7%	100.0%	
전체		빈도	186(15.1%)	1,047(84.9%)	1,233(100.0%)	

**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음주를 이분형 변수인 문제음주=1과 적정음주=0으로 변환하였으며, 본 연구의 변수들인 배우자의 언어폭력,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빈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4-5>에 제시한 분석결과와 같이 Hosmer-Lemeshow 검정 결과는 χ^2=6.895 (ρ=.548)로 적합한 모형을 보였고, Nagelkerke R^2는 2.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β=.316(ρ<.01)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심해질수록 여성의 문제음주는 1.372배(Exp(*B*))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자아존중감과 빈곤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삶의 만족도와 우울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ρ>.05).

<표 4-5>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B	S.E.	Wald	Exp(B)	EXP(B) 95%		ρ
					하한	상한	
언어폭력	.316	.102	9.625	1.372	1.124	1.676	.002*
자아존중감	.032	.039	.645	1.032	.955	1.115	.422
삶의 만족도	-.058	.038	2.350	.943	.876	1.016	.125
우울	-.048	.041	1.338	.953	.879	1.034	.247
빈곤	.446	.304	2.145	1.562	.860	2.836	.143
상수항	-1.787	.779	5.258	.167	-	-	.022

χ^2=6.895(ρ=.548)
R^2=2.2

**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인 배우자의 언어폭력, 여성의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과 음주관련 변수인 음주빈도,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하기 전 사용된 자료의 이상치 확인과 정규성 검증 그리고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추출한 값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이다.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판단을 위해 절대값 기준을 사용하는데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첨도는 절대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고 한 Kline(2005)의 기준에 따랐다. Kline(2005)은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클 경우 극단적 왜도이고 첨도의 경우 절대값이 10보다 클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는 왜도 절대값 2.573 이하, 첨도 절대값 7.137 이하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하기 위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언어폭력	1	4	1.45	.876	1.952	2.709
문제음주	7.00	12.00	8.5914	1.41983	.626	-.349
자아존중감	4.00	16.00	11.7151	2.43388	-.139	-.097
삶의 만족도	6.00	24.00	18.4086	2.51369	-1.171	3.030
우울	.00	12.00	1.2957	2.15198	2.473	7.138
빈곤	.00	1.00	.8946	.30724	-2.573	4.626
음주빈도	1.00	4.00	2.8118	.72191	.126	-.730
음주량	.00	4.00	3.0753	.80856	-.883	1.335
고위험 음주빈도	.00	4.00	2.7043	.72312	-.179	.3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배우자의 언어폭력, 여성의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빈곤 간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박희서·김구, 2006), 각 변수 간의 관련성 및 변화의 강도와 방향의 측정이 가능하여 0과 ±1 사이의 값으로 측정된다. p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또한, p값이 $0<p\leq+1$이면 양의 상관관계, $-1\leq p<0$이면 음의 상관, $p=0$이면 무상관으로 볼 수 있다.

<표 4-7>에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는 $p<0.5$의 값으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상관이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문제음주는 빈곤과 $p<0.5$의 값으로 유의하였으나, 다른 변수들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우울, 빈곤과의 상관관계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우울, 빈곤과의 상관계수 $p<0.01$로 유의하였으며, 우울은 빈곤과의 상관관계가 $p<0.01$로 유의하였다.

<표 4-7>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평 균	표준편차	언어폭력	문제음주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빈곤
언어폭력	1.45	.876	1					
문제음주	8.5914	1.41983	.058* (.041)	1				
자아 존중감	11.7151	2.43388	-.147** (.000)	.021 (.464)	1			
삶의 만족도	18.4086	2.51369	-.254** (.000)	-.038 (.184)	.409** (.000)	1		
우울	1.2957	2.15198	.226** (.000)	-.042 (.140)	-.195** (.000)	-.334** (.000)	1	
빈곤	.8946	.30724	-.048 (.091)	.059* (.037)	.163** (.000)	.176** (.000)	-.213** (.000)	1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문제음주, 우울은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상관계수가 -.334로 음의 상관을,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계수가 .409로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계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2절 연구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해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Anderson & Gerbing(1988)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확인 검증한 후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문수백, 2009).

2단계 접근법의 기준에 근거하여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각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 분석에서 하나 이상의 계수가 표준오차 2.5 이상의 큰 오차를 보이는지, 정보행렬이 역행렬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음오차분산(negative error variance)과 같은 부적합한 모수 추정치가 있는지, 표준화 계수가 -1～+1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추정치가 있는지, 추정계수 사이에 ± .90 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구성타당성에 관한 평가 방법은 CR(construct reliability) 값과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CR 값은 개념신뢰도를 뜻하는 말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신뢰도 수준은 0.7 이상일 때 내적일관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으나 0.7 이하라고 하더라도 연구의 성격에 따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AVE 값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며 .5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허준, 2016).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CR 값과 AVE 값의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8> 측정모형 분석

경로		잠재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SMC	CR	AVE
문제음주	→	고위험음주빈도	.96952	1.00000				.56775	0.784	0.567
	→	음주량	.73777	.86376	.04951	17.44483	***	.56772		
	→	음주빈도	.47015	.40464	.02954	13.69724	***	.34446		
자아존중감	→	자존감사	.75347	1.00000				.54430	0.894	0.680
	→	자존감바	.75349	.86303	.03741	23.06821	***	.93997		
	→	자존감나	.68391	.82013	.03835	21.38266	***	.32763		
	→	자존감가	.66023	.79135	.03820	20.71532	***	.40988		
삶의만족도	→	여가생활만족도	.63878	1.00000				.40555	0.901	0.650
	→	사회적친분관계	.63683	.69127	.03756	18.40280	***	.40804		
	→	직업만족도	.64022	.88243	.04775	18.48005	***	.43590		
	→	가족관계만족도	.57239	.71640	.04244	16.87880		.46774		
	→	전반적만족도	.84313	.95901	.04378	21.90569	***	.50465		
우울감	→	우울사	.54790	1.00000				.18156	0.908	0.632
	→	우울마	.47797	1.06685	.08312	12.83563	***	.55343		
	→	우울다	.71039	1.08291	.06599	16.40958	***	.71086		
	→	우울나	.58691	.89654	.06073	14.76266		.22104		
	→	우울자	.74393	.97510	.05832	16.72054		.22845		
	→	우울차	.42610	.22704	.01929	11.77272	***	.30020		

X^2=487.74582, df=129, p=.00000, GFI=.95736, RMR=.01795, RMSEA=.04751, NFI=.92798, TLI=.93572, CFI=.94580

***p<.001, **P<.01, *P<.05

또한, 잠재변수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감, 우울, 문제음주에 관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모델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지표인 GFI, RMR, RM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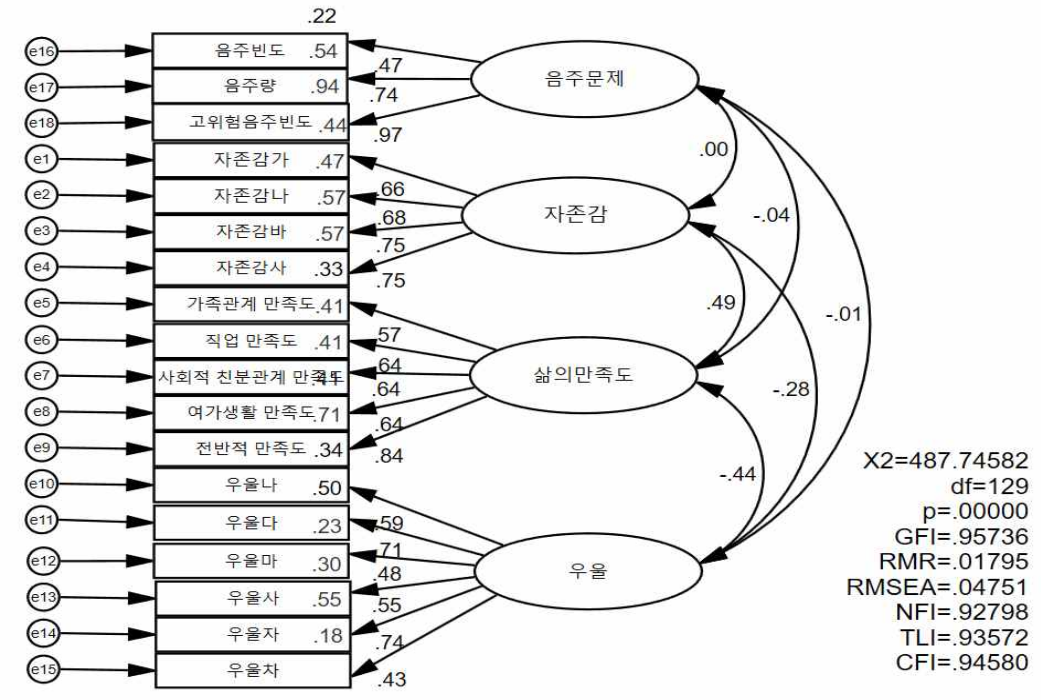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지표인 NFI, TLI, CFI를 사용하였다.

절대적합지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를 말하며 데이터상의 공분산행렬과 자신의 모형에서 추정된 공분산행렬을 서로 반복 비교하여 제시한다. 절대적합지수 지표인 GIF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80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mediocre Fit)로 간주된다. RMR과 RMSEA 값은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인정된다(홍세희, 2000).

증분적합지수는 제안모델이 기초모델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하고 증분적합지수 지표인 NFI, TLI, CFI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9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허준, 2016).

본 연구의 측정모형 카이제곱검증을 살펴보면 χ^2=487.74582(df=129), p=.00000으로 통계량이 유의하였다. GFI=.95736, RMR=.01795, RMSEA =.04751, NFI=.92798, TLI=.93572, CFI=.94580으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측정모형 분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측정모형 적합도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고자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543.98071(df=145), GFI=.95503, RMR=.01834, RMSEA=.04726, NFI=.92165, TFI=.93052, CFI=.94108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관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고 초기 설정한 모형을 기본으로 가설검정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표 4-9>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X2	df	GFI	RMR	RMSEA	NFI	TLI	CFI
적합기준	—	—	>.9	<.05	<.05	>.9	>.9	>.9
연구모형	543.98071	145	.95503	.01834	.04726	.92165	.93052	.94108

분석결과 전체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 7개 중 4개의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삶의 만족도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β=.82776, p<.05)와 우울(β=.5377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있는 경우 문제음주는 심해지고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β=-.57277, p<.001), 삶의 만족도(β=-.82802, p<.001) 값을 보였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심해질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두 변수의 β값이 비슷하여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두 변수에서 비슷한 정도의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아존중감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β=.1955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성의 문제음주 수준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5와 정반대의 결과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β=.46509)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P<.05)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6과는 다른 결과이다. 우울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19602). 우울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문제음주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결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역시 가설과는 반대 방향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 외 잠재변수과 관측변수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의 검증 결과는 아래 표 <4-10>에, 측정모형은 [그림 4-2] 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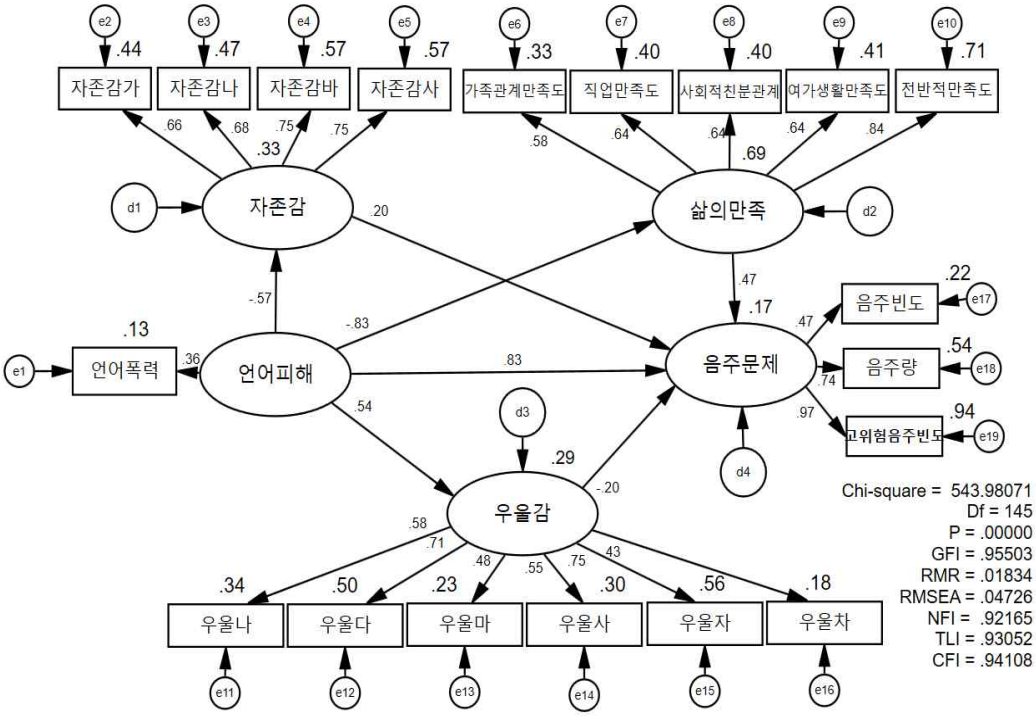
<표 4-10> 연구모형 분석결과

잠재 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언어폭력	→	문제음주	.82776	1.33861	.62639	2.13703	.03260*
	→	자아존중감	-.57277	-1.02937	.11993	-8.58285	***
	→	삶의만족도	-.82802	-1.65923	.19757	-8.39826	***
	→	우 울	.53772	.67014	.08186	8.18597	***
자아존중감	→	문제음주	.19553	.17594	.07450	2.36173	.01819*
삶의만족도	→	문제음주	.46509	.37533	.20843	1.80079	.07174
우 울	→	문제음주	-.19602	-.25435	.09872	-2.57638	.0099**
	→	우울나	.58480	1.00000			
	→	우울다	.71033	1.21213	.06959	17.41797	***
	→	우울마	.47673	1.19117	.08970	13.27932	***
	→	우울사	.54720	1.11799	.07586	14.73762	***
	→	우울자	.74543	1.09375	.06143	17.80508	***
	→	우울차	.42847	.25557	.02097	12.18998	***
문제음주	→	음주빈도	.46932	1.00000			
	→	음주량	.73644	2.13468	.13107	16.28623	***
	→	고위험음주빈도	.97147	2.48109	.18072	13.72876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언어폭력	→	언어폭력	.35704	1.00000			
자아존중감	→	자존감가	.66039	1.00000			
	→	자존감나	.68373	1.03583	.05338	19.40639	***
	→	자존감바	.75494	1.09241	.05267	20.73925	***
	→	자존감사	.75213	1.26110	.06094	20.69547	***
삶의만족도	→	여가생활만족도	.63776	1.00000			
	→	사회적친분관계	.63609	.69158	.03761	18.38723	***
	→	직업만족도	.63590	.87787	.04776	18.38280	***
	→	가족관계만족도	.57749	.72393	.04257	17.00545	***
	→	전반적만족도	.84433	.96192	.04385	21.93772	***

***p<.001, **P<.01, *P<.05



[그림 4-2] 연구모형의 측정결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1. 다중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유의한 매개효과 확인을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효과분해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허준, 2016).

본 연구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확인을 위해 붓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다. 붓스트래핑 방법은 주어진 원본 데이터로부터 무작위로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수의 표본을 여러 개 뽑아내고, 표본별 각종 추정값이나 신뢰구간 등을 각각 계산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최종 추정값이나 신뢰구간, 표준오차 등의 통계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노경섭, 2019). 일반적인 모수적 방법은 추정하려는 모수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지만 붓스트래핑의 경우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제안되었다. 붓스트래핑의 장점은 추정하려는 모수의 분포를 몰라도, 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며, 경험적인 분포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일반적으로 수백 번에서 1,000여 번 이상 반복하여 결과를 도출하므로 결과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허준, 2016).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다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직접효과(β=0.82776, ρ<.01),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β=−0.57277, ρ<.001),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β=−0.828027, ρ<.001),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β=0.53772, ρ<.001)로 유의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직접효과 β=0.19553(ρ<.01), 삶의 만족도가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직접효과(β=0.46509, ρ<.01), 우울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직접효과(β=−0.19602, ρ<.01)도 통계량에서 유의하였다.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이 갖는 간접효과(β=−0.6025, ρ<.01)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값인 총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의 직접효과(β=0.82776)와 간접효과(β=−0.6025)를 더한 값이 β=0.22526로 ρ<.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붓스트래핑(bootstrappping)을 활용한 효과의 분해를 한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세 변수의 다중 매개효과로 인해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효과분해를 통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1> 구조방정식 효과분해

			표준 직접효과	표준 간접효과	표준 총효과
언어폭력	→	문제음주	0.82776**	−0.6025***	0.22526***
	→	자아존중감	−0.57277***		
	→	삶의 만족도	−0.82802***		
	→	우울	0.53772***		
자아존중감	→	문제음주	0.19553**		
삶의 만족도	→	문제음주	0.46509**		
우울	→	문제음주	−0.19602**		

***p<.001, **P<.01, *P<.05

2. 개별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amos)을 활용한 분석에서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간접효과가 분리되지 않고 합해져 제시된다. 그로 인하여 각각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허준, 2016). 따라서 본연구의 매개변수의 개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부호가 반대(+,-)이면서 효과의 크기가 같은 경우 전체 매개효과가 0으로 계산되어 매개효과가 없다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경섭, 2019). 팬텀변수는 다중매개효과 검증 시 모델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되는 가상의 변수이다(배병렬, 2014). 팬텀변수를 이용한 경로의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정 경로를 고정(a, b, c)하고 팬텀변수들(p2, p4, p6)간 경로 역시 동일하게 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팬텀 변수에는 오차항이 없으며 모수치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노경섭, 2019).

본 연구의 각각의 매개효과의 경로를 살펴보면 경로 1. 배우자의 언어폭력→자아존중감→여성의 문제음주, 경로 2. 배우자의 언어폭력→삶의 만족도→여성의 문제음주, 경로 3. 배우자의 언어폭력→우울→여성의 문제음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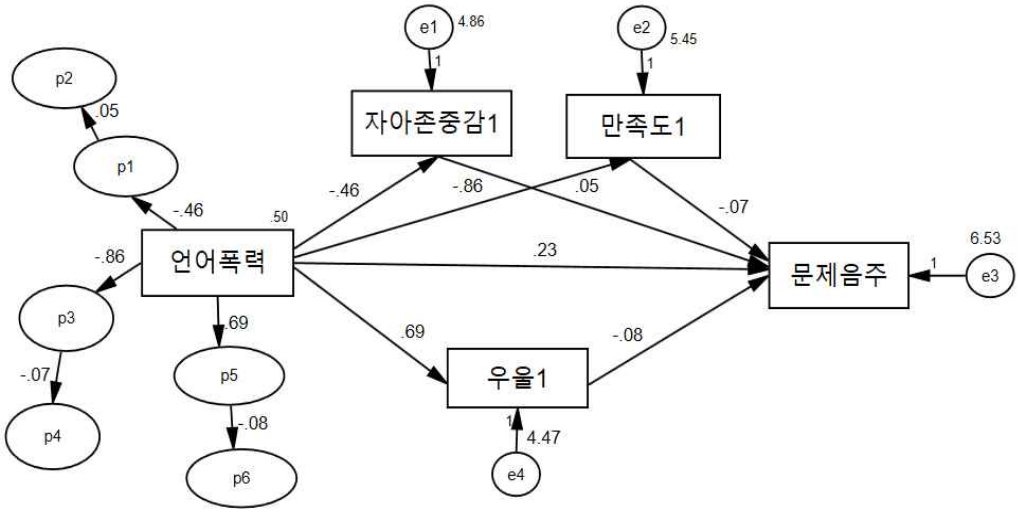
이 경로들의 간접효과의 결과는 아래 <표 4-12>, [그림 4-3] 과 같다. 경로 1. 자아존중감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β=-.048(P>.05)로 간접효과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로 2. 삶의 만족도의 간접효과는 β=-.066(P<.05)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를 매개함이 검증되었다. 경로 3. 우울의 간접효과는 β=-.082(P<.05)로 우울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를 매개함이 검증되었다.

<표 4-12> 개별 매개효과 검증

경 로					Estimate	S.E.	P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언어폭력	→	자아존중감	→	문제음주	.048	.033	.142
	→	삶의만족도	→		-.066	.031	.035*
	→	우 울	→		-.082	.035	.018*

***p<.001, **P<.01,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3] 개별 매개효과 검증

3.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의 조절효과 분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한 범주형 데이터를 조절변수로 투입하고 이를 활용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구조방정식에서 특정 범주에 따라 변수의 범주별 다중집단 분석을 하면, 그 범주형 변수가 바로 조절변수가 되고 다중집단 분석의 결과가 조절효과 분석결과가 된다고 한다(허준, 2016).

구조방정식모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검증방법에는 단순 경로 유의성을 비교하는 방법, 두 경로계수의 차이를 t 값으로 계산하는 방법, 기저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검증은 그룹별로 동일한 위치의 계수들의 유의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모형은 χ^2=740.237(df=290), GFI=.941, RMR=.038, RMSEA=.036, NFI=.894, TFI=.920, CFI=.932로 확인되어 양호한 적합도(mediocre fit) 기준을 통과하였다. 검증결과 일반가구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β=0.73012(P<.05),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영향은 β=−0.57121(p<.001)로 나타나 유의하였으며,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β=−0.80905(P<.001),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β=0.51559(p<.001)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β=0.18053(P<.05), 우울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β=−0.15839(P<.05)로 나타나 통계량 검증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가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β=0.3997(P>.05)을 보여 일반가구에서 빈곤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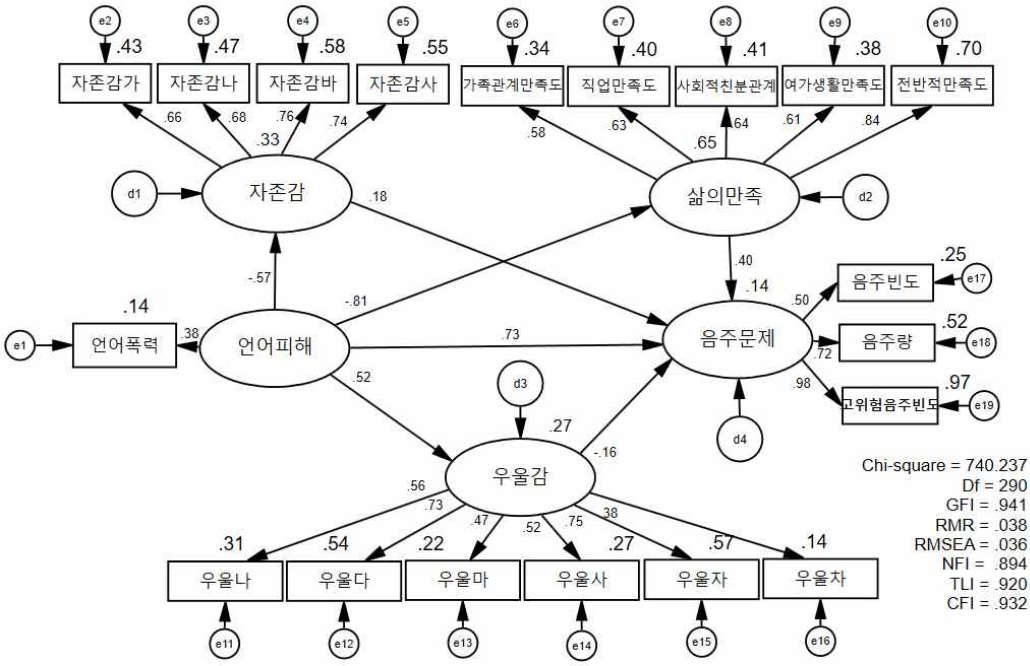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일반가구에서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우울을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가구의 변수 간 유의성 확인 결과는 <표 4-13>에, 분석 모형은 [그림 4-4] 에 제시하였다.

<표 4-13> 일반가구 조절효과

잠재 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언어폭력	→	문제음주	0.73012	1.1938	0.57195	2.08724	0.037*
	→	자아존중감	-0.57121	-0.97981	0.11926	-8.2156	***
	→	삶의만족도	-0.80905	-1.51043	0.18942	-7.97414	***
	→	우 울	0.51559	0.56455	0.07386	7.64347	***
자아존중감	→	문제음주	0.18053	0.17209	0.07899	2.17855	0.029*
삶의만족도	→	문제음주	0.3997	0.35006	0.19905	1.75864	0.079
우 울	→	문제음주	-0.15839	-0.23651	0.10775	-2.19505	0.028*

***p<.001, **P<.01,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4] 일반가구 조절효과 검증

빈곤가구는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β=0.87873,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β=-0.4528,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β=-0.90126,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β=0.49759, 자아존중감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β=0.06896, 삶의 만족도가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β=0.39327, 우울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β=-0.173로 모든 변수의 인과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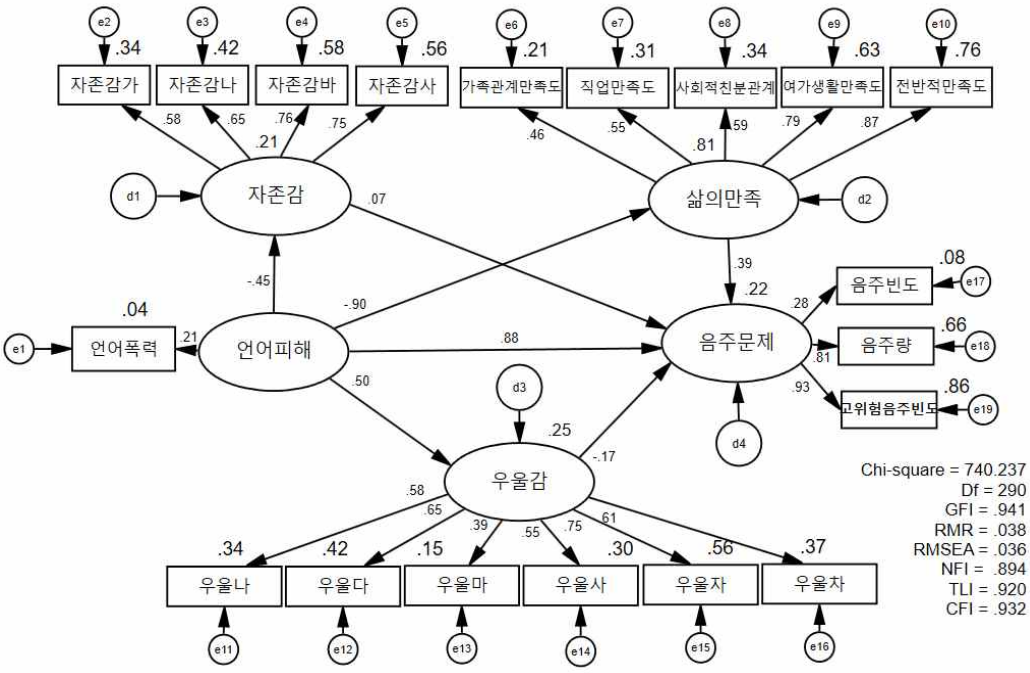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빈곤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중 어느 하나의 변수도 여성의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빈곤가구의 변수 간 유의성 확인 결과는 <표 4-14>에 분석모형은 [그림 4-5] 에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4> 빈곤가구 조절효과

잠재 변수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언어폭력	→	문제음주	0.87873	1.36773	4.7152	0.29007	0.77
	→	자아존중감	-0.4528	-1.03053	0.56424	-1.82641	0.07
	→	삶의만족도	-0.90126	-3.24493	1.88458	-1.72183	0.09
	→	우 울	0.49759	1.14919	0.61796	1.85966	0.06
자아존중감	→	문제음주	0.06896	0.04716	0.18583	0.25379	0.80
삶의만족도	→	문제음주	0.39327	0.17001	1.06741	0.15928	0.87
우 울	→	문제음주	-0.173	-0.11659	0.21235	-0.54906	0.58

***p<.001, **P<.01, *P<.05



[그림 4-5] 빈곤가구 조절효과 검증

조절효과 확인을 위한 분석결과 일반가구는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나 빈곤가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모두가 두 변수 사이를 매개하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않았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는 빈곤으로 인하여 부분적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일반가구와 빈곤가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분석결과 논의

1. 두 변수 사이의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중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은 모두 7개이며, 그중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문제음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고, 우울이 문제음주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기각되어 나머지 4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문제 1의 가설은 채택되었다(β=.82776, $p<.05$). 본 연구결과는 배우자 폭력 피해경험과 문제음주(조자영·이경민, 2015)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한 여성이 문제음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더해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β=−.57277, $p<.001$)이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남성음주와 배우자의 언어폭력의 관계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송진영(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남편의 배우자의 폭력의 증가(Goldstein & Rosenbaum, 1985),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남편의 배우자 폭력(Murphy et al., 1994),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남성이 배우자 폭력에 반대하는 태도가 높다는 연구(Ali and Toner, 2001)를 지지하며 배우자의 폭력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 영향관계를 가질 것(β=−.8280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001)이라는 가설3 역시 채택되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해석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언어를 이용한 배우자폭력이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넷째,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우울이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우울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β=.53772, p<.001),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우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심리적, 신체적 건강까지 악화시킨다는 연구(김소정, 2018)와 유사하였다. 또한 김민주(2017)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 영향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β=.19553, p<.05)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 사이의 영향관계는 p<.05로 통계량에서 유의하였으나, 부(−)의 영향 관계가 아닌 정(+)의 영향 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경향(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9; Collins et al., 2016)을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문제음주가 부(−)의 영향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β=.46509, p>.05). 윤명숙·최현미·김남희(2013)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의 음주 문제의 증가가 배우자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연구대상과 영향관계가 다르지만 삶의 만족도와 문제 음주라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만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인과관계의 차이가 있지만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정선영(2003), 윤명숙·김성혜(2010), 홍인옥(2013)은 두 변수 사이의 부정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고, 김지훈 외(2013)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의 인과관계와 측정도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여성의 우울이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은 기각되었다(β=−.19602, P<.01).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울(송진영, 2014), 문제음주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우울(김지훈 외, 2013), 음주와 우울(이봉재, 2007), 문제음주와 우울(권현수·성희자, 2010) 등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던 바와 같이 우울과 문제음주의 영향관계를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지지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가설과 같은 정(+)의 영향이 아니라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울이 커질수록 문제음주는 낮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붓스트래핑(bootstrappping)을 이용한 다중 매개효과 검증과 각 변수의 간접효과 확인하는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모두 실시하였다.

첫째, 붓스트래핑을 이용한 다중 매개효과 검증결과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로 가는 직접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배우자의 언어폭력,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이르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으며, 간접효과의 값은 $\beta=-0.6025(p<.01)$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는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beta=-0.6025$, $p<.01$)를 거쳐 총효과($\beta=0.22526$, $p<.001$)의 영향이 낮아졌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역할로 인하여 여성의 문제음주에 간접효과를 미친다는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둘째, 각 변수의 개별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1. 배우자의 언어폭력→자아존중감→여성의 문제음주 경로($\beta=.048$, $P>.05$)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로 2. 배우자의 언어폭력→삶의 만족도→여성의 문제음주의 경로($\beta=-.066$, $P<.05$), 경로 3. 배우자의 언어폭력→우울→여성의 문제음주 경로($\beta=-.082$, $P<.05$)는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9는 기각되었고 가설 10, 11은 채택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매개효과가 빈곤으로 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 일반가구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경로에서 유의하였으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빈곤가구는 어느 경로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가설 12-1, 가설 12-3은 채택되었고, 가설 12-2는 기각되었다.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설검증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내용	검증결과
연구문제 1.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5	자아존중감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6	삶의 만족도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7	우울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 2.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가설 8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다중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설 9	자아존중감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가설 10	삶의 만족도는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 11	우울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 3.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로 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가설 12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채택
12-1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채택
12-2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기각
12-3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우울을 매개로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채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스트레스 대처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위협요인인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며, 빈곤으로 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9년에 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제14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배우자의 언어폭력, 음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그리고 빈곤에 응답한 여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음주를 하는 여성으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여성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빈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월 2~4회로 40.1%였으며, 월 1회 이하의 음주 횟수를 보인 여성은 34.5%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의 74.6%의 여성이 1주일에 1회 이하의 음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음주빈도 상으로 적정음주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음주량에 있어서 한 번의 술자리에서 1~2잔 정도 마신다는 응답이 47.2%로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52.8%의 여성이 위험음주를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여성의 음주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위험음주빈도는 9.6%의 여성이 '일주일에 한두 번'과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여 고위험음주율은 기존의 발표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대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음주하는 여성들의 위험음주와 고위험 음주빈도가 높다는 점은 여성의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음주행동을 문제음주군 186명(15.1%)과 적정음주군 1,047명(84.9%)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교육수준, 주된경제활동참여상태, 종교가 문제음주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혼인상태, 가구형태, 빈곤은 문제음주와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령대로는 40대, 50대, 60대, 20대, 80대, 80대 순이었으며(χ^2=24.378, p<0.001), 특히 40, 50대 중년여성들의 문제음주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수록된 '성 및 연령 집단별 고위험음주율(2005~2017)'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 중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9세~29세 사이로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들의 음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젊은 여성이 중년기, 노년기의 여성보다 고위험음주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는 표본 분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성 중에 20대의 비율이 전체의 2.4%에 지나지 않고 30대 역시 19.9%에 불과하여 전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검증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결혼한 여성과 미혼여성은 생활양식과 음주 환경의 차이가 있으며 젊은 여성들이 미혼여성들만큼 자유롭게 음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문제음주군과 적정음주군의 차이도 유의하였는데(χ^2=18.730, p<0.001), 전체 문제음주군 186명 중 91명(48.9%)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분포(40.6%)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대학교 졸업한 여성이 33명으로 나타났다.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χ^2=23.542, p<0.01), 상용직, 임시직의 문제음주군 비율이 높았으며,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종사자와 구직 중인 사람들의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직업 분포도와 동일 비율의 결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 고위험 음주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직업군인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비교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있는지에 따라 문제음주군에 속한 비율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χ^2=14.597, p<0.001).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문제음주군에 속한 비율이 낮았으며 종교가 없는 여성의 문제음주군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종교가 있고 없음에 따라 여성의 음주태도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음주를 금하는 종교의 규율을 따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넷째,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의 언어폭력에 따른 여성의 음주행동의 유의확률은 χ^2=11.697(p<0.01)로 나타나 언어폭력과 문제음주 간에는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피해경험이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성 46명 중 문제음주 비율은 28.3%로 언어폭력 피해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여성의 문제음주 비율 13.6%에 비해 15%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언어폭력을 많이 경험한 여성이 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문제음주군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언어폭력 1~2번을 경험한 여성의 문제음주 비율과 3~5번의 비율은 20.3%와 20.0%로 비슷하여서 언어폭력에 의한 차이는 드러내지 않았다.

다섯째,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여성의 문제음주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언어폭력이 심해질수록 여성의 문제음주는 1.372배(Exp(*B*))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를 문제 음주군과 적정 음주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로 여성의 문제음주 행동에는 배우자로부터 들은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언어폭력이 원인이 되며, 폭력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문제음주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 외 변수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빈곤은 여성의 문제음주 여부와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여섯째, 측정모형적합도와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수용하기에 좋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분석결과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문제음주와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변수의 β값이 비슷하여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두 변수에 비슷한 정도의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문제음주 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우울이 증가한 여성의 문제음주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다른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이고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하며 그 결과로 음주선택의 가능성은 낮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진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의 문제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 음주의 영향요인으로 심리적이고 내적요인이 강조된 기존의 연구에서 우울이 깊어질수록 음주 수준이 높아졌다는 보고와 반대되는 결과로 우울이 커질수록 문제음주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타나났다. 삶의 만족도(β=.46509, P>.05)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곱째, 붓스트래핑(bootstrappping)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언어폭력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에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도 여성의 문제음주에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변수들의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여(β=−0.6025, ρ<.01),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조절 통하여 문제음주 수준을 낮춰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다중매개효과 검증과 별도로 개별 매개효과 검증은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와 우울은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두 가지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문제음주를 낮추는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중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여덟째, 빈곤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일반가구는 배우자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p<.05), 자아존중감과 우울도 여성의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빈곤가구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매개변수로 사용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모두에게서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원인으로 발생한 빈곤가구의 여성음주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4차(2019년) 조사에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일반가정과 빈곤가정이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학문적,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원인으로 여성의 문제음주 영향관계를 검증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남성의 폭력과 남성의 문제음주를 검증한 연구가 많다.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탐색은 음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대처와 적응 모형을 적용하여 처음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성 음주율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20년 제시한 여성의 위험음주율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위험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 경험이 있는 여성이 한 번의 술자리에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비음주 여성에 대한 예방정책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음주 여성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검증을 통하여 문제음주가 여성의 고유한 내적, 심리적, 유전적 특성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라는 가정 내 권력 관계에서도 기인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에 대한 직접 대응이나 적극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느낀 여성이 스트레스 회피반응으로 문제음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검증 결과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여성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넷째, 배우자의 언어폭력의 수준에 따라 여성의 문제음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6번 이상 경험한 여성의 문제음주 수준이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심해질수록 여성의 문제음주 또한 증가한다는 결론이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섯째, 삶의 만족도와 우울은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우울을 증가시켜 여성의 문제음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은 여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 하락이나 우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대처자원을 찾기 힘든 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성의 문제음주를 낮추기 위해서는 폭력 발생 이후의 상황일지라도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조절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인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규모 패널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2.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년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음주에 대한 관대한 사회문화와 주류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으로 적극적 정책 추진과 실행이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발표를 계기로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질적 성과의 도출을 위해 제도와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관련 기관의 적극적 수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사점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언어폭력 피해여성의 공적 지원체계의 접근성 강화를 제안한다.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의 음주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가족은 중독문제의 지속, 악화, 치료 및 회복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과 중독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간주된다. 언어폭력도 엄연히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폭력의 일종이며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폭력의 특성상 초기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게시판, 채팅,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앱(app) 등 IT 강국의 인프라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는 초기상담 창구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지원체계로 전환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채널의 확보는 피해여성의 익명성 보장,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 사회적 자원의 접근기회 강화를 가져다주며, 시간과 상황으로 인한 제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 종교에 따른 개별화된 음주폐해예방 계획을 제안한다. 여성의 음주는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 따라 남성과는 다른 음주행동을 보이므로 개별화된 따른 접근방식은 음주정책 효과성 증대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족체계 내에서 음주는 여성 개인적 선호행위, 개인의 일탈, 개인의 선택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음주가 아닌 사회적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알코올 정책 역시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관한 사회적 포괄이 요구된다.

셋째,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발생 시 공권력 개입의 목적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이기에, 피해자 의사존중을 의무의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폭력이나 성적폭력과 달리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어렵고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여성에게 가해자의 형사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후에 벌어질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더 심각한 가정의 불화와 피해여성의 자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여성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상황의 개선없이 문제음주의 개선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권력 개입 시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피해여성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말다툼'과 같은 사소한 행위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초기대응 메뉴얼의 정확한 기준 제시와 함께 공권력 수행기관과 수행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개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알코올 사용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흡연의 경우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아파트 베란다 같은 사적 공간에서조차 사용규제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주는 시간적, 공간적 규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에서 발표한 '현재 음주자 주류 구매 용이성'은 33.3%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주류구매가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 심야시간대 주류판매 금지, 음주가능연령 상향 조정, 음주 광고 규제와 같은 예방정책은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이외의 법적제재방법이 없어 발생하였던 음주폐해의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하며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로 인한 피해는 피해당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가해자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역할수행과 같은 법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음주규제에 관한 법과 정책의 확대시행과 함께 음주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공익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의 병행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여성의 탈 폭력 촉진과 음주문제 개선을 위해 가사와 양육, 경력단절, 비정규직, 돌봄 노동, 임금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과 여성의 문제음주의 영향관계에서 일반가구와 빈곤가구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다. 배우자의 폭력은 피해여성의 사회적 자원을 파괴하여 빈곤화될 가능성을 높이기에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적 능력 획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해 여성이 경제력을 갖추고 음주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요구된다.

3. 실천적 시사점

배우자의 폭력을 원인으로 발생한 아내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제시할 실천적 시사점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적 협력이 낮은 경향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과 치료과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여 남성의 언어폭력을 낮추고 여성의 문제음주를 개선하는 치료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보게 되는 문제음주자들은 이미 만성화된 중독상태에 있거나 다른 의료적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어서 비용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및 치료 효과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문제음주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기 위해서는 음주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특히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 문제음주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개인에 대한 개입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나 부부치료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와 문제음주를 함께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하기위해 정부와 민간, 기관과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co-work)와 수행역할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요구된다. 가정폭력 지원기관, 가정폭력 상담기관, 알코올 치료기관,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도 업무적 연대와 함께 관련기관 간의 역할 구분과 연계 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공무원, 경찰서, 교육계, 의료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서비스 중복과 인력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기관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만을 수행하여 상담이나 지원체계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으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표면화된 현상과 내재 되어있는 문제의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여성 음주문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문제와 음주문제에 대한 교차훈련(cross-training)이 필요하다.

셋째, 음주에 관한 허용적 인식과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폭력도 엄연히 폭력이라는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대구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452건 중 정서적폭력이 43.6%로 신체적폭력 166건(36.7%)를 넘어섰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부간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적 개입이 어려운 가족 간의 '사소한 문제'라는 통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율도 가정폭력 상담소(남성: 73.7%, 여성: 76.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남성: 56.2%, 여성: 60.3%), 여성긴급전화 1366(남성: 39.6%, 여성: 46.9%)로 나타나 특히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주예방 캠페인, 음주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교육과 관련한 홍보의 대상 및 범위의 확대를 제안한다.

넷째, 여성단주모임, A·A(Alcoholics Anonymous) 자조모임[17], 가족모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지지그룹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A·A 자조모임의 경우 한국 내 186그룹, 약 2,500명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멤버의 숫자는 전체의 35%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치료율은 1.6%에 불과하여 문제음주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와 전문기관의 다양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일이다. 치료를 위해 입원과 긴 상담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대인관계 문제, 단주 시 겪는 스트레스, 분노, 우울, 무력감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의 조절, 음주에 대한 갈망, 음주의 강한 유혹이 찾아오는 고위험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하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회복자, 상담자와 함께하는 주기적 모임과 함께 언제 어느 곳에서든 상담이 가능한 지지그룹을 통한 창구개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제음주를 하는 여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여성의 부적응적 정서를 관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상담과 치료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참여 동기를 증진시켜 음주와 폭력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대처로 음주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문제음주자가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 방법, 분노조절 방법 같은 적응훈련, 단주프로그램이나 회복과 재발방지 프로그램 같은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직업훈련은 여성이 생활인으로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17) A.A 자조모임 : 알코올중독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이 자조모임은 공식적으로 멤버들의 명부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멤버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에 대해 밝히며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데이터는 배우자의 언어폭력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 폭력의 다른 유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영향관계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언어폭력의 여러 형태와 함께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폭력과 문제음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폭력피해 여성들의 문제음주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18년 조사를 기반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어 배우자의 언어폭력 요인과 여성 문제음주의 영향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여성 문제음주 사이의 변화추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종단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폭력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문제음주자인 여성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의 문제음주를 배우자의 언어폭력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위협요인인 우울 그리고 빈곤과 같은 경제적 요인 등을 통합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반면, 자녀나 여성의 원가족, 배우자 가족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그 연구범위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부모의 갈등과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자녀에게 심각한 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일 것이다. 여성의 음주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여성에게 중요한 환경적 요소라 여겨지는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한 향후 연구를 제안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단행본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강영준·권태윤·권태주·박종오·유은지·이윤정(2015).『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파주: 창비교육.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권석만(2006).『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광기(2002).『여성건강증진과 음주: 한국여성건강증진연구회』, 서울: 현문사.

김광일(1998).『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사.

김상균(1996).『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서울: 나남출판사.

노경섭(2019).『제대로 알고 쓰는 통계분석 SPSS & AMOS』, 서울: 한빛아카데미.

문수백(2009).『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박희서·김구(2008).『사회복지 조사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배병렬(2014).『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보건복지부(2018a).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2018b). 『음주폐해예방실행계획』.

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2016).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소책자』.

여성가족부(2020).『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윤정숙·이승현·김미숙·김유경·김지민·박미랑(2017).『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강혜 역(2018).『언어폭력』. Patricia Evans(1992).『The Verbally Abusive Relationship』, 서울: 북바이북.
이상원·최지욱·정범석(2013).『거친 언어 사용이 학생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뇌인지과학 학술대회자료집,
이영 역(1995).『인간발달생태학』. Bronfenbrenner(1979).『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서울 : 교육과학사.
이종인 역(2013).『지의 향연』. Avram Noam Chomsky(2008).『The Essential Chomsky』, 서울: 시대의 창.
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
통계청(2019). 『2018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집』.
통계청·여성가족부(2019).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통계개발원(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흡연과 음주 실태』.
허준(2016).『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출판사.
여유진(2005).『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학위논문 –

강은경(2013). “노인의 감정조절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강지영(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족 내외의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관(2007). “언어폭력이 카지노딜러의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기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진(2019).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수영(2018). “한국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에 따른 사회보장 전략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수진(2015). “건강이슈유형에 따른 상황적 헬스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모델 연구: 귀인이론과 감정의 인지평가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김승용(2002). “노인부부 폭력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민(2017). “형성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티어의 빙산메타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윤(2008).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정(2005). “통합적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성동(2014). “언어폭력 상처경험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부목회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효송(2008). “언어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애(2003). “학급 내 언어적 폭력의 내용 분석: 부산시 남자중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은(1997).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수현(2006).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현(2012).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설아(2019). “도시화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 빈곤, 불평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유경(2005).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미(2011). “청소년의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정원(2020).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소진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위로 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용후란(1995). "알콜중독자의 재발요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상황, 지각 및 대처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재희(2012).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 위험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정애(2017).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언어폭력, 성희롱 신체적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 대처 및 사회적 지지",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재연(2009). "대학 농구 동아리 참가자의 운동참여동기,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각원(2004). "여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아상태와 우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정(2011). "주부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정(2010).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2008). "사회적 지지가 은퇴 남성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호(2017).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자영(2018).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변화동기, 금주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 증진과 우울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주(2011).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 및 아기 장래 결정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민주(2019). "응급실 간호사의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분노 표현 방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소진(2017).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분석: 잠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선영(2003). “여성알코올중독자와 정상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자아존중감·사회적지지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춘숙(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성민(2009).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공존문제자의 특성 및 재발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천보경(2019).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무기력 감소 및 자립의지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소영(2015). “SNS 인맥네트워크와 이용 정도가 SNS 피로도와 이용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옥주(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관계와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정민(2020). “가정폭력을 겪은 알코올중독자 배우자의 외상 후 성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희순(2018). “중·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추환호(2017). “호텔종사원이 경험한 고객언어폭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성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 노출의 조절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귀원(1996). “주정중독 환자에서 음주욕구를 유발하는 조건화 자극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정선(2016). “중년여성의 라인댄스 체험과 우울증 극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석동(2016). “소득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인옥(2013).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재용(2008).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과 반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학술논문 -

강길호(1996).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언어적 폭력의 유형과 실태”, 언어논총, 14, 139-151.

강상경·권태연(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32-355.

강신욱(2005). “스포츠사회학: 언어폭력이 생활체육 참가자의 자존감과 공격성 및 운동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6), 169-182.

강혜자(2016).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에 대한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3). 445-452.

고기숙·정미경(2012).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54-279.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회, 47(2), 1-30.

구재선·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12(2), 77-100.

권태연(2011). “심리사회행동요인을 고려한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3(1), 187-215.

권태연·강상경(2007). “가구주의 음주관련 요인이 배우자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07(5), 283-300.

권현수(2009). “노인 문제음주가 우울,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빈곤노인 및 비 ㅂ빈곤노인 집단에 대한 잠재평균분석의 적용”, 한국노년학, 29(4), 1521-1538.

권현수·성희자(2010). “성인 문제음주가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3(1), 147-167.

금희조(2006).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시청과 등장인물과의 사회적 비교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결혼 및 연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2), 98-137.

김계하(2004), “미혼 여성의 음주 양상과 흡연정도 및 우울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6(1), 18-2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경혜(2011).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00호, 1-21.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15(2), 19-39.

김문두(2004). “제주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음주습관과 우울증상 및 스트레스”, 신경정신의학, 43(1), 29-39.

김미연(2015). “언어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63, 31-51.

김미영·김신희·임숙현(2007). “간호사가 경험하는 병원 폭력 실태 조사 연구”, 간호과학학회지, 17(2), 33-44.

김민주(2017). “노인의 성별에 따른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의 관계: 2015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콘텐츠학회, 2017(1), 522-531.

김상인(2011).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과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6, 93-125.

김소정(2018). “아내학대와 피해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우울”,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5(1), 1-27.

김양희(2013). “가정폭력은 개발협력 이슈인가?”, 한국국제협력, 2013(4), 200-221.

김예란(2015). “언어로 하는 폭력, 언어에 대한 권력”, 지식의 지평, 18, 123-138.

김옥수·김계하(2001).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관한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3), 363-372.

김원(2015).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이론”, 우울조울병, 13(2), 68-72.

김윤태·서재욱(2015). “빈곤의 다차원성: 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 146-186.

김은정·오경자·하은혜(1999).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4(1), 1-14.

김재엽·이지현·송향주·한샘(2010). “아내 폭력 피해여성의 위험음주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2(4), 275-296.

김정란·김경신(2003). “아내학대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21(2), 87-101.

김정미·조현재(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 비난 및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존성의 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0(2), 283-306.

김정범·이상희(2006). "우울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연구동향". 인지행동치료, 6(2), 131-144.

김정현·윤여진·정인경(2016).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1), 71-85.

김주현·장수미(2011).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 피해여성의 경험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학, 291-317.

김지현(2015). "빈곤의 정의: 다면성과 측정의 한계", 한국국제협력단, 2015(1), 11-38.

김지훈·강욱모(2016). "베이비부머의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인과관계: gender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1), 93-113.

김지훈·강욱모·문수열(2013). "중년층의 문제음주가 우울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3), 185-203.

김진영(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 87-113.

김진욱·김선형(2019). "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자료집, 39-53.

김평식·신현주(2017). "조직적 요인이 직장 내 성희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3(3), 25-40.

김형일·유승호(2016). "더 나은 삶 지수"에서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주관적 웰빙의 내적·외적 양태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9(1), 65-90.

김혜련·조영희(2000). "학대받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 72-78.

김혜정(2015).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김희정·김윤태(2020). "다차원적 빈곤과 아동의 학업성취: 빈곤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적질학회, 4(1), 1-32.

김희정·박덕(2013). "고객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제언-언어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1(2), 169-17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영희(2007). “여대생의 음주문제 관련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4), 552-561.

박경(2003).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8(3), 581-593.

박경현(2001).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국어교육의 방향”, 경찰대학논문집, 21, 315-353.

박소연·양소남(2018). “성인 여성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융복합적 함의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469-478.

박소정·서천영(2017). “언어폭력이 역기능적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격려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호텔기업의 직장 내 언어폭력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지, 42(4), 87-116.

박언주·김효정(201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경제적 폭력의 경험과 탈폭력 가능성 확장의 양면적 구성”, 페미니즘연구, 15(2), 71-106.

박은영·서지민·주현옥·이은남(2007). “폭력에 대한 응급실 간호사의 반응 유형: Q방법론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7(5), 762-771.

배지현·박현식(2006). “노인의 위험행동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노년학, 26(4), 785-800.

민예술·김창대(2018).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험이 매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부귀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9(6), 113-127.

서병수(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 접근”, 사회복지정책, 28, 199-232.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성영신·김미나·임선희(2007). “사실적 vs. 이상적 광고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학술대회 자료집, 2007(1), 570-571.

소유진(2011). “언어폭력 예방상담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0(2), 119-136.

손정영·유영주(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도시중산층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2), 145-16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송아영(2018). “가정 내 폭력,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5), 16-21.

송진영(2014). “중년여성의 문제음주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4), 523-553.

송진영(2015). “남성의 문제음주 여부가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7(2), 53-79.

송진영·심정수(2014). “우울이 배우자폭력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7(1), 65-85.

신동환(2014).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GRI연구논총, 16(3), 71-96.

신영주·김유숙(2009).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 과정: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4(4), 683-710.

신원우(2017), “성인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8), 923-932.

신현숙·구본용(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89-225.

신혜섭(1998). “가정폭력의 여권론적 이론과 체계이론의 비교 및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 3, 51-75.

신혜진·김창대(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14(4), 919-935.

심영(2015). “생계비를 통해 본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한국생활과학회, 24(2), 237-253.

아영아·정원철(2010).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연구, 12(4), 257-277.

양승희·한금선(2003). “여대생의 음주형태,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연구”, 33(7), 1057-1064.

엄순옥·문재우(2017). “중·노년층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5, 53-76.

오세원·엄용섭(1980). “우울병이 발병된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찰”, 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정신의학, 19(3), 234-245.

우성목·장옥진·최화경·이영렬(2017). “위험음주자 선별을 위한 한국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알코올 소비점수(AUDIT-C), 3번 문항(AUDIT3)의 유용성과 최적 절단 값”, 중독정신의학, 21(2), 62-67.

원두리·김교헌(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11(1), 125-145.

유승호(2009). “몰입적 행복의 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83-191.

유채영(2003). “공중보건 관점에서의 문제성 음주 개입”,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5156-5163.

유혜숙(2017). “알코올중독과 상습폭력의 이중고를 겪는 가정을 위한 국가지원 체계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 인격주의 생명윤리, 7(2), 17-61.

윤명숙·김성혜(2010). “여성의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57-273.

윤명숙·박아란 (2015). “청소년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7(3), 239-261.

윤명숙·조혜정(2012). “남성가구주의 음주가 배우자 음주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폭력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2), 111-131.

윤명숙·최현미·김남희(2013).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음주문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가정폭력피해경험의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42(3), 83-111.

윤상용·김태완(2009).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재활복지, 13(1), 61-83.

윤태호(2010).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상황과 복지, 30, 49-77.

이강준(2006).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인지치료의 효과”, 생물정신의학, 13(3), 144-151.

이경혜(2006). “기혼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스트레스와 대처”, 간호과학, 18(1), 30-37.

이남옥(2011). “체계론적 가족치료 통합모델의 적용”, 가족과 상담, 1(1), 1-22.

이병욱·이충헌·이필구·최문종·남궁기(2000).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중독정신의학, 4(2), 85-94.

이봉재(2005).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종교적, 영적대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2(2), 141-153.

이봉재(2007). "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로 인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7(5), 301-313.

이숙현·한창근(2019).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집단 간 다집단 분석", 보건사회연구, 39(1), 293-333.

이순희·정승은(2007). "병원 내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3(4), 526-536.

이웅·임란(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24(2), 237-253.

이해국(2019). "알코올 사용장애의 역학과 예방정책",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8(3), 152-158.

이현경·이보혜·최만규·임정훈(2012). "우리나라 성인의 문제음주와 관련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건강행태, 건강수준, 삶의 질이 정신건강을 매개로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2012(06), 63-85.

이현주·엄명용(2013).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 사회복지연구, 44(2), 113-140.

이현지·정동훈(2013).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중단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7(4), 269-293.

이홍자·김춘미·이도현(2016). "중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진흥원, 16(1), 1-10.

임구원(2013). "노인부부폭력의 유형별 발생실태에 따른 가해요인 분석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9, 47-70.

임정선(2014). "직장 내 언어폭력의 심리적 영향, 한국입법정책학회, 8(2), 91-111.

임지숙(2020).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외로움과 상향비교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44(1), 117-143.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수미(2006). “음주와 가정폭력의 이해와 개입”,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7(1), 13-26.

장수미(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사회사업, 28, 152-174.

장수미(2010). “가정폭력 가해남성과 피해여성의 문제음주 특성”, 한국사회과학연구, 32(1), 197-210.

장유경·장세헌·제영묘·이대수·홍성욱·윤창영(2007). “우울 증상이 호전된 비우울 집단과 우울집단 간의 인지요인의 비교”, 생물치료정신의학”, 13(2), 209-214.

장은영(2008). “나보다 나은 사람 혹은 못난 사람은 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1), 43-61.

장은영·한덕웅(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18(3), 127-153.

장지은·최희승(2016). “초기 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서중심 개별중재의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25(2), 101-112.

정세미·홍진주(2020). “근로 빈곤층 여성의 통합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67(.1), 187-221.

정소라·현명호(2015). “SNS 이용자의 상향비교 경험 우울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및 자기 명확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4), 703-717

정슬기(2007).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 남자 대학생과의 비교”,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7, 176-198.

정슬기(2008). “대학생의 우울증세, 성장기 스트레스 유발사건과 문제음주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6(1), 113-134.

정애진·장경애(2020), “언어폭력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구강보건과학회, 8(1), 23-29.

정영태(2006). “빈곤의 여성화: 제주지역 여성의 빈곤”, 제주발전연구 제10호, 275-293.

정춘숙(2003).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책”,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6, 10-13.

제갈정·강희원(2019). “여성 고위험음주율의 변화 추세: 연령-기간-코호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PC)분석", 주간건강과 질병, 12(50), 2319-2328.

제갈정·김광기·유승현·최승아·김태현·주민희(2017). "여성 고위험음주 감소를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HP 모니터링에 근거하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34(4), 27-39.

조미숙(2002). "가정폭력 가해자의 알코올중독이 아내 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1), 102-110.

조옥선·백진아(2018). "취업 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 매개효과", 중소기업융합학회, 8(6), 293-303.

조자영·이경민(2015). "노인의 배우자폭력 피해경험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015(3), 227-247.

조혜정(2015). "중년기 남성의 음주가 배우자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4), 63-87.

조혜정·윤명숙(2012). "남성노인의 문제음주와 배우자 폭력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2(3), 31-58.

조혜진·나혜림(2018). "생명보험소비자의 불평행동 결정요인 및 불평유형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14(3), 113-140.

차경진·이은목(2015). "사회비교이론 관점에서 살펴본 SNS 이용중단 의도", 전자거래학회지, 20(3), 59-77.

차진경·신현주(2012).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사법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2), 271-304.

최경숙(2007). "자기존중감과 긍정심리학", 스트레스연구, 15(3), 205-214.

최보라·박수진·최수찬(2010). "기혼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업 및 조직, 23(1), 53-74.

최은희(2018). "국민 연령별 삶의 만족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T산업경제, 48-58.

하오령·권정혜(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과 역할 만족도: 역할 갈등, 완벽주의 및 가족지지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675-69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은혜·김은정·오경자(1999).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4(1), 1-14.

한금선·양승희·전겸구(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8(3), 565-579.

한인영·우재희(2011). “여성알코올중독자의 변화 동기와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90-119.

함철호(2018).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대처-적응 모델의 적용”,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4, 81-114.

허만세(2012). “중년여성의 음주문제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2(1), 201-227.

허만세·손지아(2011). “중년기 여성의 문제음주 변화와 자아존중감 변화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빈곤의 효과 검증”, 정신보건과사회사업, 37, 89-116.

허민숙(2013). “가정폭력에 대한 젠더 통합적 접근 : 가정폭력 실태조사 비판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2), 62-89.

허우성(2009). “원래 거친 것이 말이다: 언어폭력의 문제”, 철학과 현실, 2009, 119-126.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2001).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202-215.

허휴정·서유빈·채정호(2014). “감정조절: 초진단적 관점에서 개념과 정신치료에의 적용”, 대한우울·조울병학회, 12(3), 155-163.

홍백의·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19(1), 161-177.

황윤영·주민선(2007). “일 지역 노인의 건강인식과 건강행태에 따른 우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4), 583-59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인터넷 자료 및 기타자료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2020). “스트레스”.
URL: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0. 03. 15.)

국립정신건강센터(2019.06.14.). “정신질환의 이해: ‘스트레스’라는 말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URL:http://www.ncmh.go.kr/kor/data/snmhDataView.jsp?no=8516&fno=39&gubun_no=0&pg=3&search_item=0&search_content=&menu_cd=K_04_12_01_00_00
(검색일 : 2020. 03. 23.)

박은숙(2019.05.24.). “무기력은 힘이 세다, ‘학습된 무력감”, 교육정책뉴스.
URL: 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36
(검색일 : 2020. 03. 30)

방형애(2015.03.06.). “생각보다 위험한 여성음주”, 복지로: 복지칼럼.
URL: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ExpertDetail.do?srchListType=&dataSid=6321949 (검색일: 2020. 03. 05.)

서울아산병원·질환백과(2020). “우울증”.
URL: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81. (검색일 : 2020. 05. 12.)

성주원(2020.06.02.). “카페인 우울증”, 울산매일TV.
URL: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730
(검색일. 2020. 06. 15.)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혼자서 술 마시는 ‘혼술’ 늘어나: ‘16년 하반기 주류 소비·섭취 조사 결과”, 보도자료.

양승일(2015). “용어해설-빈곤”,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URL: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101&page=47&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검색일 : 2020. 04. 13)

여성신문(2012.12.14.). “‘키친드렁커’-부엌에서 혼자 술 마시는 여성 음주자-겨울을 조심하세요”.
URL: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7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검색일. 2020. 04. 20)
여주시청(2020). “가정폭력”.
URL:https://www.yeoju.go.kr/cms/content/view/689
(검색일 : 2020. 04. 17)
유정민(2019.10.02.). “다문화가정 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다문화방송신문.
URL:http://www.wdm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
(검색일 : 2020. 04. 27.)
중앙일보(2016.04.11). “거친 말, 뇌 망가뜨려 '생각의 감옥'에 가둔다”.
URL:https://news.joins.com/article/19868916 (검색일 : 2020. 04. 17)
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2016a). “건강정보: 알코올중독”.
URL: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3700&subIdx=4
(검색일: 2020. 02. 23.)
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2016b). “건강정보: 스트레스”.
URL:https://health.cdc.go.kr/health/Resource/Module/Content/Printok.do?idx=3540&subIdx=1
(검색일 : 2020. 03. 15.)
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2017. 5. 10.). “건강정보: 위험음주! 알려드리겠습니다”.
URL: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14520
(검색일: 2020. 02. 23.)
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2020.05.27.). “음주 현황 및 통계”.
UR:http://health.cdc.go.kr/health/mobileweb/content/group_view.jsp?CID=K1C21DS1R0
(검색일 : 2020. 06. 15.)
차병원(2020). “질병정보-우울증”.
URL:https://www.chamc.co.kr/health/dictionary/content.asp?ds_id=75&ds_word=%A4%B7&p_code=&search=&keyword=. (검색일 : 2020. 03. 2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0.06.15.)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URL: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9&ccfNo=6&cciNo=1&cnpClsNo=1. (검색일 : 2020. 04. 15)
최진주(2015.06.01.). “막말의 시대, 행복해지는 언어의 기술”, 네이버포스트.
URL: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36362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emberNo=25516952. (검색일 : 2020. 04. 15.)

통계청·통계개발원(2019). “국민 삶의 질 지표”.
URL:http://qol.kostat.go.kr/blife/result-idx.do?oaYear=2016&idctId=201304963
(검색일: 2020. 02. 05.)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3).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
URL:https://www.khealth.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91
&page_no=B2017004&board_idx=7806 (검색일: 2020. 02. 02.)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9).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2018) 조사자료 User’s Guide.
URL:https://www.koweps.re.kr:442/data/guide/list.do.
(검색일: 2019. 12. 12.)

홍지영(2017.05.23.).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 SNS 우울증 심해지고 있다. 카페인 우울증”, SBS NEWS.
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7760
(검색일 : 2020. 04. 22..)

A·A한국연합(2020). “A·A에 관한 사실들-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
URL:http://www.aakorea.org/aaintro.html (검색일 : 2020. 03. 27)

국외문헌

-BOOKS-

Adler Alfred. (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New York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quality of life.* New York: Plenum Press.

Ann M. Kring DMS. (2010).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Gilford Press. 13-22.

Arden, J. B. (2002). *Surviving job stress: How to overcome work day pressures*. Franklin Lakes, NJ: Career Pres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tkinson, A. (1998).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employment and atkinson and hills (eds.).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LSE Case paper 4. London: LSE.

Baker, J. E. (2004). *Social skill training*. NY: Autism Asperger Publishing Company.

Brenner, E. M., & Salovey, P. (1997). Emotion regulation during childhood: developmental interpersonal, and individual considerations.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Educational Implications*, 168-192. New York: Basic Book.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Newbury Park, CA: Sage.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rns, R.B. (1979). *The self-concept: Theory, measurement, development and behavior*. London: Lomman.

Cannon, W.B. (1939). *The wisdom of the body.* New York: Norton.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Dennis Butler Fry. (1977). *Homo loquens: man as a talking animal.* Cambridge: CUP.

Ekman, P. (1973). *Cross-cultural studies of facial expression*. Darwin and facial expression: A century of research in review. New York: Academic.

Elmer N. (2001). *Self-esteem: the costs and causes of low self-worth.* York, England; York Publishing Services, Joseph Rowntree Foundation.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NY: McGraw-Hill.

Freud S. (1957).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standard ed.). Lond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ogarth Press.

Goleman.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Gottman, John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Lawrence Eribaum Associates.

Haralambos, M., & Holborn, M., & Heald, R. (1991). S*ociology: Themes and perspectives.* London: Collins Educational.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Hester RK., & Miller WR. (1995). *Handbook* of *alcoholism treatment approaches: Effective alternatives.* Allyn & Bacon.

Hyson, M. C. (1989). *The classroom practices inventory: An observation instrument based on NAEYCs guidelines for developmentally. apprepriate practics for 4-and 5-Year-old children.* Chicago, IL.: Spencer Foundation.

Joseph, K., & J. Sumption. (1979). *Equality*. London: John Murray Publishers.

Kline, R. B. (2005).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Guilford Press: New York.

Klugman, J. (2002).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Washington DC: World Bank.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lli, S. (2008). *Operationalising sen's capability approach: The influence of the selected technique. in the capability approach: Concepts, measures and applications* (eds.). F. Comim., & M. Qizilbash., & S. Alk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joo Rashida.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N General Assembl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aslow A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Moos, R. H., & Billings, A. 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

Moos, R. H., & Schaefer., & J. A.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34-257. Free Press.

Peyser, J. (1982). *Stress and alcohol. in Handbook of Stress.* edited by L. Goldberger and S. Bresnitz. New York: Free Press.

Ravallion, M.(1992). *Poverty freak: a guide to concepts and methods*.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Pape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Ravindran, A. V., & Merail, Z., & Anisman, H. (1997). Dysthymia: A biological perspective. In Licinio, J. Bolis, C. L., & Gold, P. (eds). *Dysthymia: from clinical neuroscience to treatment* (pp.21-44). Washington: World Health Organization.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 R. G. Simons. (1971).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 D. C.: Monograph Seties.

Schalock, R. L., & Verdugo, M. A. (2002). *Handbook* on *quality of life for human service practitioner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Schmidt LA., & Weisner CM. (1999). Public health perspectives on access and need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In Tucker TA., & Donovan DM, Marlatt GA (Eds.). *Changing addictive behavio*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67-96.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eath. Freeman: San Francisco.

Selye, H. (1975).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 Hill.

Sirgy, M. J. (2001).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ing perspective.* Springer Netherlands.

Straus, M. A., &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The marriage license as a hitting license. In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pp. 31-50). New York: Anchor Books.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Harmondsworth.

Turkle, S.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Walker. L. E. (1979).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Pub. 42-54.

Walker. L. E. (1984). *Women and mental health policy.* Beverly Hills, CA: Sage,

William James. (1890). *The consciousness of self*.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8.

World Bank. (2001). *World development report: Attacking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llo, K. A., & Straus, M. A. (1993).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ives: The impact of structural and normative factors. In M. A. Straus & R. J. Gelles(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383-399).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Articles -

Aaron Beck. (1963). Thinking and depression: I. Idiosyncratic cont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Arch Gen Psychiatry,* 9(4), 324-333.

Abramson, L. Y., &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goub M., & Moussaoui D., & Battas O. (2005). Prevalence of postpartum women's depression in a moroccan sample. *Archives of Mental Health*. 8(1), 37-43.

Albright, A. V. (1999). Vulnerability to depressio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4(2). 393-407.

Alkire, S., & Foster, J. (2007).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 7-8.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neshensel, C. S., & Frerichs, R. R., & Clark, V. A. (1981). Family role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79-393.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threat and self-esteem on affect, self-evaluation and expected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08-722.

Baer, J. S. (2002). Student factors: Understanding individual variation in college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4, 40-53.

Baumeister R., & Smart L., & Boden J.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Beehr, T. A., & Newman, J. E. (1978). Job stress, employee health,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fact analysis, Model and literature review. *Personnel Psychology*, 31(4), 665-699.

Bellavial, G., & Murray, S. (2003). Did I do that? Self-esteem-related difference in reactions to romantic patner's mood. *Personal Relationships,* 10(1), 77-95.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esile, Kathleen C. (2009). Advancing the study of violence against women: Rresponse to jordon. *Violence Against Women,* 15(4): 428-433.

Blackhart, G. C., & Nelson, B. C., & Knowles, M. L., & Baumeister, R. F. (2009). Rejection elicits emotional reactions but neither causes immediate distress nor lowers self-esteem: A meta-analytic review of 192 studies on social exclu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3(4), 269-309.

Brush, L. D. (2003). Effects of work on hitting and hurting. *Violence against Women*, 9(10), 1213-1230.

Buback, D. (2004). Assertiveness training to prevent verbal abuse in the OR. *AORN Journal*, 79(10), 148-164.

Cameron, L. (1998). Verbal abuse: a protective approach. *Nursing management*, 29(8). 34-36.

Carlson, B. E., & McNutt, L., & Choi, D. Y., & Rose, I. M. (2002). Intimate partner abuse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other protective factors. *Violence Against Women,* 8(6), 720-745.

Carver, C. S., &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Cattaneo, L. B., & Bell, M. E., & Goodman, L. A., & Dutton, M. A. (2007).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s accuracy in assessing their risk of re-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429-440.

Chou, H. T. G., & Edge, N. (2012). They are happier and having better lives than I am: The impact of using Facebook on perceptions of others' liv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2), 117-121.

Clark, A., & D. Foy. (2000). Trauma exposure and alcohol use in batter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6(1), 37-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lark, M., & Isen, A. (1982). Towar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lling states and social behavior. *In Cognitive Social psychology,* 73-108.

Cohen. S., & Hoberman. H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Collins, S. E. (2016). Associations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alcohol outcomes. *Alcohol Research*, 38(1), 83-94.

Conger, J. (1956).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 296-305.

Conney NL., & Litt MD., & Morse PA., & Bauer LO., & Gaupp L. (1997). Alcohol cue reactivity, negative-mood reactivity, and relapse in treated alcoholic 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243-250.

Cook, J. K., & Green, M., & Topp R, V. (2001). Exploring the impact of physician verbal abuse on perioperative nurses. *AORN journal*, 74(3), 329-331.

Cox, H. (1991). Verbal abuse nationwide, Part Ⅰ: Oppressed group behavior. *Nursing Management*, 22(2). 32-35.

Cunradi, C. B., & Caetano, R., & Schafer, J. (2002). Socioeconomic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4), 377-389.

DA Ford. (2009). The substance, scholarship, and science of research on violence against women: A comment. *Violence Against Women*, 15(4), 420-424.

Dawson, D. A., & Archer, L. (1992). Gender effects in alcohol consumption: Effects of measurement.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7, 119-123.

Dawson, D. A., & Grant, B. F., & Stinson, F. S., & Chou, P. S. (200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other look at heavy episodic drinking and alcohol use disorders among college and noncollege youth.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4), 477-488.

Dehart, T., & Tennen, H., & Armeli, S., & Todd, M., & Mohr, C. (2009). A diary study of implicit self-esteem,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alcohol consump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45(4), 720-730.

Depue, R. A., & S. W. Monroe. (1986).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human disorder in life stress research: The problem of chronic disturbance. *Psychological Bulletin*, 99(1), 36-51.

Diana Pearce. (1976).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1-2, 28-36, 78.

Diaz, A. L. & McMillin, J. D. (1991). A definition and description of nurse abus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3(1), 97-109.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iener, E., & Larsen, R. J. (1984). Temporal stability and cross- situational consistency of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71-883.

Diener E., & Suh EK.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cators Research*. 40, 189-216.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1), 89-97.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Foster, J. H., & Peters, T. J., & Kinf, P. (2002). Quality of life, sleep, mood and alcohol consumption: A complex interaction. Addiction Biology, 7(1), 55-6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atz, M., & Russeell, L. A., & Grady, J., & Kram-Fernanadez, D., & Clark, C., & Marshall, B. (2005). Women's recollections of victimization, psychological problems,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4), 479-493.

Geisner, M. I., & Larimer, E. M. & Neighbors, C. (2004). The relationship among alcohol use, related problems, and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tress: Gender as a moderator in a college sample. *Addictive Behaviors*, 29, 843-848.

Goethals, G. R. (1986). Social comparison theory: Psychology from the lost and fou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261-278.

Goldstein, D., & A, Rosenbaum. (1985). An evaluation of the self-esteem of maritally violent men. *Family Relations*, 34(3). 425-428.

Goodman, L. A., & Smyth, K. F., & Borges, A. M. & Singer, A. (2009). When crises collide: How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artner intersect to shape women's mental health and coping. *Trauma, Violence & Abuse,* 10(4), 306-329.

Greenfield, S., & Weiss, R., & Muenz, L. (1998). The effect of depression on return to drinking.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3), 259-265.

Gross, J. J. (1998). Antecedent-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224-237.

Harrison, L., & C. Willis. (2000). Effects of race and victim drinking on domestic violence attributions. *Sex Roles,* 42(11/12), 1043-1057.

Heise, L. L. (1998). 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grated, ecological framework. *Violence Against Women*, 4(3), 262-290.

Hilberman, E. (1980). The wife beat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36-1347.

Hill, Ponald, P., & Kelly D. Martin. (2012). A Tale of two marketplaces: Consumption restriction, social comparisom, and life satisfaction. *Marketing*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Letters, 23(3), 731-744.

Holahan, C. J., & Moos, R. H., & Holahan, C. K., & Cronkite, R. C., & Randall, P. K. (2001). Drinking to cope, emotional distress and alcohol use and abuse: A ten year model.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2), 190-198.

Infante, D. A., & Riddle, B. L., & Horvath, C. L., & Tumlin, S. A. (1992). Verbal aggressiveness: Message and reasons. *Communication quarterly*, 40(2), 116-126.

Infante, D. A., & Wigley, C. J. (1986). Verbal aggressiveness: An interpersonal model and measure. *Communication Monographs*, 53. 61-69.

Jessor, R., & Costa, F. M., & Krueger, P. M., & Turbin, M. S. (2006). A developmental study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sychosocial and behavioral protective risk facto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7(1), 86-94.

Jordon Carol. (2009). Advancing the study of violence against women: Evolving research agendas into science. *Violence against women*, 15(4), 393-419.

Kanner, A. D., & Coyne. J. C., &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l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Koole, S. L. (2009). The psychology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rgrative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3(1), 4-41.

Kruglanski, A. W., & Mayseless, O. (1990). Classic and current social comparison research: Expanding the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08(2), 195-208.

Kulik, J. A., & Mahler, H. I. M. (1989). Stress and affiliation in a hospital setting: Preoperative roommate pre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2), 183-193.

Lanza, M. L.(1983). The reactions of nursing staff to physical assaul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y a patient. *Hospital Community Psychiatry*, 34(1), 44-47.

Lassiter, G. D., & Munhall, P. J. (2001). The genius effect: Evidence for a nonmotivational interpre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4), 349-355.

Launius, M. H., & Lindqist, C. U. (1988). Learned helplessness,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assivity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 307-318.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3), 234-247.

Lipsky, S., & R. Caetano, C. A. Field, & G. L. Larkin. (2005). Psychosocial and substance-use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8, 39-47.

Lipton, R. I. (1994). The effect of moderate alcohol u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 1913-1917.

Livingston, L. R. (1986). Measuring domestic violence in an alcoholic populatio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3(4), 943-953.

Mai-Ly, N. S., & Robert, E. W., & Linda, K. A. (2014). Seeing everyone else's highlight reels: How facebook usage is linked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8), 701-731.

Marc A. Schuckit, MD., & Tom L. Smith. (1996). An 8-year follow-up of 450 sons of alcoholic and control subjec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3), 202-210.

Maria Bosque Prous., & A. Espelt., & AM. Guitart., & Mt Bartroli., & Joan R. Villalbí., & M. Teresa Brugal. (2015). Association between stricter alcohol advertising regulations and lower hazardous drinking across European countries. *Addiction,* 109(10), 1634-1643.

Martin, M. C., & Kennedy, P. F. (1993). Advertising and social comparison: Consequences for female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Psychology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arketing, 10(6), 513-530.

Mechanic, M. B., & Weaver, T. L., & Resick, P. A. (2008).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abuse: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our different forms of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14(6), 634-654.

Miller BA., & WR Downs., & M Testa. (1993). Inter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women's alcohol 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1, 109-117.

Mooney, A., & Cresser, R., & Blachford, P. (1991). Children's views on teasing and fighting in junior school. *Educational Research*, 33(2), 103-110.

Moscato, B. S., & Russell, M., & Zielezny, M., & Bromet, E., & Egri. E., & Mudar, P., & Marshall, J.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problem: A longitudinal perceptiv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6(11). 966-974.

Murphy, C. M., & Meyer, S. L., & O'Leary, K. D. (1994). Dependency characteristics of partner assaultive 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729-735.

Northrop, E. M. (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o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s issues*, 24(1), 145-160.

O'Guinn, TC., & Shrum, LJ. (1997). The role of television in the construction of consumer real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3(4), 278-294.

Pedrelli, P., & Farabaugh, H. A., & Zisook, S., & Tucker, D., & Rooney, K., & Katz, J., & Clain, J. A., & Petersen, J. T. (2011). Gender, depressive symptoms and patterns of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pathology*, 44, 27-33.

Pearlin, L., & Radabaugh, C. (1976). Economic strain and the coping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unction of alcoho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3), 652-663.

Ravallion, M., & S, Chen., & P, Sangraula. (2009). Dollar a day revisited.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3(2), 163-184.

Reis, T. J., & Gibbons, F. X. (1993). Social comparison and the Pill: Reaction to upward and downward comparison of contracept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1), 13-20.

Rhodes, NR. (1992). Comparision of MMPI psychopathic deviate scores of battered and non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7(4), 297-307.

Richins, ML. (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zed images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1), 71-83.

RJ. Gelles. (1993). Constraints against family violence: How well do they wor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5), 575-586.

Robbins, C. (1989). Sex difference in psychosocial consequences of alcohol and drug ab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30, 117-130.

Russell, M., & Cooper, ML., & Frone, MR,, & Pierce, RS.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alcohol, and blood pressure in community-based samples of Black and non-Bblacks. *Journ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23(4), 299-306.

Ryff, CD., & Carol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Salovey, P., & Rodin, J. (1984).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 comparison: Jealousy and romantic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6), 1100-1112.

Sayette, M. (1999). Does drinking reduce stress?.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3(4), 250-25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ebastian, C., & Blakemore, S., & Charman, T. (2009). Reactions to ostracism in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8), 1122-1130.

Semmelman PS(1983). Battered and nonbattered women: A comparison. Degree: Ph. D., Ohio State University.

Sen Amartya. (1985). 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overty: A reply to professor peter townsend. *Oxford Economic Papers,* 37(4), 669-676.

Straussner, S. L. (1985). Alcoholism in women: Current knowledge and lications fortreatment. *Alcoholism TreatmentQuarterly*, 2(1), 61-77.

Thompson R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Turner, R. J., & Avison, W. R. (1996). Innovations in the measurement of life stress: Crisis theory and the significance of event resolu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 Behavior*, 33, 36-50.

Warr, P., & Parry, G. (1982). Paid employment and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1(3), 498-516.

Weitzman, E. R. (2004). Poor mental health, depression and associations with alcohol consumption, harm and abuse in a national sample of young adults in college. *Journal of Nerwus and Mental disease*, 192(4), 269-277.

Wheeler, L., & Miyake, K. (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760-773.

Williams, KD. (2007). Ostracis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25-452.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2), 245-271.

Wood, J. V. (1989). Theory and research concerning social comparison of personal attribute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31-2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ood, J. V., & Taylor, S. E., & Lichtman, R. R. (1985). Social comparison in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5), 1169-1183.

Young, R., & Oei, T. P. S., & Knight, R. G. (1990). The generalization of alcohol-related tension reduction expectancie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31-4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ternet Resources and Others Rosources-

IARC(2020). IARC Monographs on the Identification of Carcinogenic Hazards to Humans.
URL:https://monographs.iarc.fr/agents-classified-by-the-iarc/
(검색일 : 2020. 03. 06.)

OECD(2020). How's Life in Korea?: Korea's current well-being, 2018 or lastest availabel year: Better Life Intiative.
URL:http://www.oecd.org/statistics/how-s-life-23089679.htm
(검색일 : 2020. 04. 23.)

Open Ads(2019.08.09.).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 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URL:http://www.openads.co.kr/nTrend/article/5972
(검색일 : 2020. 04. 30.)

WHO(2004).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Geneva.

WHO(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

WHO(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URL:https://apps.who.int/iris/bitstream/10665/77432/1/WHO_RHR_12.36_eng.pdf
(검색일 : 2020. 04. 13.)

WHO(2014). Grobal Status reports on alcohol and health 2014.
URL:http://www.who.int/substance_abuse/publications/global_alcohol_report/profiles/kor.pdf (검색일: 2020. 01. 08.)

Who(2018).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8.
URL:https://www.who.int/substance_abuse/publications/global_alcohol_report/en/(검색일: 2020. 03. 07.)

Womenshealth. gov(2020). Emotional and verbal abuse.
URL: https://www.womenshealth.gov/relationships-and-safety/other-types/emotional-and-verbal-abuse (검색일 : 2020. 06. 13.)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 :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URL: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4391
(검색일 : 2020. 03. 0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설 문 지

Ⅰ. 가구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3.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4.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⓪ 비해당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기타

5. 귀하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단독가구 ② 모자가구 ③ 조손·소년소녀가장 ④ 기타

6. 귀하의 건강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7. 귀하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8.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담배를 피움 ② 담배를 피우지 않음

10.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일반 가구 ② 저소득층 가구

Ⅱ. 음주

11.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12.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① 1~2잔 정도 ② 3~4잔 정도 ③ 5~6잔 정도 ④ 7~8잔 정도 ⑤ 10잔 이상

13. 한 번의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몇 달에 한 번 정도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⑤ 거의 매일

Ⅲ. 언어폭력 피해 경험

14. 귀하가 과거에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으면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세요.
① 전혀 없음 ② 1~2번 ③ 3~5번 ④ 6번 이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자아존중감

15. 귀하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

항 목	1	2	3	4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3.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5.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7. 대체로 만족한다.				
8.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다.				
10.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삶의 만족도

16.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구 분	1	2	3	4	5
건강 만족					
가족의 수입 만족					
주거환경 만족					
가족관계 만족					
직업 만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여가생활 만족					
전반적 만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Ⅵ. 우울

17.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각 문항을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2=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4=대부분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항 목	1	2	3	4
1.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하다.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5. 잠을 설친다.				
6. 외롭다.				
7. 불만없이 생활한다.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9. 마음이 슬프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11.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에 제시된 설문은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 koWePS(Korean Welfare Panel Study)의 제14차(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